NAXOS
www.naxos.com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8.557429
Brahms :
Symphony No.2 & Hungarian Dances
London Philharmonic
Marin Alsop, c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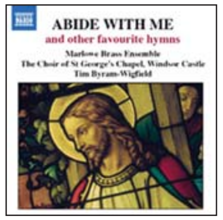
8.554561
The Romantic Harp
Judy Loman, Harp

8.557682
Hummel :
Piano Sonata Nos. 1,7,8,9
장혜원, piano

8.110305
Boccherini, Haydn, Elgar : Cello Concerto
Pablo Casals, cello
London Symphony
Adrian Bo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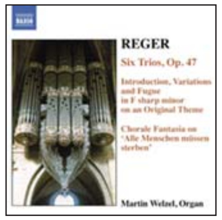
8.557571
Haydn :
Symphony Nos. 1–5
Sinfonia Finlandia
Patrick Gallois

8.557809
Goran Krivokapic
Guitar Recital
Werthmuller, J.S. Bach, Scarlatti, Bogdanovic


8.557578
Abide with Me & other Favourite Hymns
Choir of St George's Chaple, Windsor Castle
Tim Byram-Wigfield

8.557820
Respighi :
Orchestral Suite etc.
Slovak Radio Symphony
Adriano

8.555994
Lutoslawski :
20 Polish Christmas Carols
Olga Pasichnyk, sop
Polish Radio Symphony & Chorus
Antoni Wit


8.557338
Reger :
Organ Works Vol.6
Martin Welzel, Organ

8.557591
Rubbra :
Violin Concerto etc.
Krysia Osostowicz, Violin
Ulster Orchestra
Takuo Yua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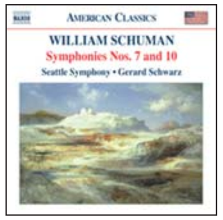
8.557494
Martinu :
Songs
Olga Cerna, Mezzo-soprano
Jitka Cechova, Piano

8.557587
Ifukube :
Sinfonia Tapkaara etc.
Ekaterina Saranceva, Piano
Russian Philharmonic
Dmitry Yablonsky

8.557438
Turina :
Piano Music Vol.2
Jordi Maso, Piano

8.669003-04(2CDs)
Adams :
'I was looking at the ceiling...
Young Opera company Freiburg
Holst Sinfonietta
Klaus Simon

8.559210
Still :
Piano Music(Africa, 7 Traceries etc)
Mark Boozer, Piano


8.559255
W. Schuman :
Symphony Nos. 7 & 10
Seattle Symphony
Gerard Schwarz

8.559253
Bauer :
Orchestral & Chamber Works
Ambache Chamber Orchestra & Ensemble

8.559419
A Jewish Celebration in Song
Vienna Choir Boys
Vienna Chamber
Gerald Wirth

8.559453
Beveridge :
Yizkor Requiem
Academy & Chorus of St. Martin in the Fields
Sir Neville Marriner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usic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www.aulosmusic.co.kr

www.aulosmusic.co.kr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October 2005

DVD Hot Issue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갈루피 소나타**

화제의 음반
러시아의 뜨거운 심장, **페도세예프의 새 음반**

Rebirth
오디오파일의 전설 **안티폰 블루스 2탄**

낙소스(Naxos)
- Jul., Aug., Sep. -
정기샘플러 발매

Cover Story
자랑스러운 훔멜 스페셜리스트 장혜원 교수

훔멜 피아니스트로서의 이미지 굳힌

피아니스트 장혜원

피아니스트 장혜원. 그녀는 서울에서 출생하여 6살 때부터 피아노 공부를 했고, 1960년한국 콩쿠르에서 1등으로 입상한 것을 포함해 이 즈음에 여러 가지 상을 함께 받았다. 1963년 이화 여대 음대를 졸업한 후 1964년부터 1968년까지 독일 정부 장학금으로 독일로 가서 프랑크푸르트 음악원을 수학,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졸업장을 받았으며, 국내에 들어와서는 바로 이화 여대에 재직하며 얼마 전까지 동 대학 음대 학장으로 많은 후학을 양성해왔다. 1957년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처음 전문 독주자로서 모습을 보여준 후 그녀는 국제 음악 페스티벌, 세종 문화회관, 괴테 문화원 개관을 위한 페스티벌 등 많은 음악 축제에 출연했었고, 1985년에는 리스본의 비안나 다 모타(Lisbon Vianna da Motta)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장혜원의 음반은 낙소스와 그 자매 레이블인 마르코 폴로에 있는데, 지금까지 바흐의 협주곡과 여러 작품,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 자크 이베르의 피아노 음악,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훔멜 피아노 협주곡 등 장혜원의 독집이거나 장혜원이란 이름이 들어간 낙소스 음반은 이미 20매가 넘게 발매되어 있다. 장혜원의 디스코그래피를 훑어보면 그녀의 주요 관심 영역이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그리고 훔멜 등 고전주의 음악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훔멜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이미지가 강한데, 그것은 훔멜의 소나타 13번, 20번, 81번을 담은 제 1집과 38번과 106번을 담은 제 2집에 이어 최근 제 3집까지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몰입하고 있는 작곡가 훔멜 그는 어떤 작곡가였나?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녀가 그 작곡가에 빠져 있는 것일까?

훔멜은 오스트리아 작곡가로 1778년 포쇼니(Pozsony)에서 태어났다. 포쇼니는 현재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가 되어 있지만, 당시는 오스트리아령이었다. 그는 다섯 살에 바이올린을, 여섯 살에 피아노를 연주했던 신동이었다. 일찍이 훔멜의 재능을 알아본 모차르트는 빈에 온 그에게 돈을 받지 않고 피아노를 가르쳐 주기도 했을 정도로 모차르트의 눈에 꼭 들었던 천재였다. 당연하게도 천재 선생에게 배운 천재 제자는 당대에 탁월한 비르투오소 음악가가 되었다. 작곡가로서도 능수능란한 음악적 기술을 지녔던 훔멜은 많은 기악작품들, 오페라, 미사곡, 성악곡들을 창작해 서양음악사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피아노의 대가였던 그는 피아노가 포함된 작품에서 대단한 역량을 보였다. 많은 매력적인 피아노 소품들도 많으나 훔멜의 비르투오소 음악가로서의 기량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7개의 피아노 협주곡과 소나타들이다.

얼마전 장혜원의 훔멜 소나타 2집의 음반에는 훔멜의 나이 30세 때인 1808년 작품인 Op.38과 44세 때인 1824년에 씌어진 Op.106가 실렸었다. 이 두 작품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훔멜이 얼마나 탁월한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였으며 얼마나 놀라운 창의력을 지닌 작곡가였는지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Op.38에서도 많은 장식과 황홀한 테크닉의 표현을 접하며 어떤 특별한 성찬에 초대된 느낌을 받았다. Op.106 같은 작품은 정말 아름답다. 독특하게 반복되는 음형의 1악장, D장조 트리오 섹션과 대비되는 교묘한 옛 스타일의 D단조 스케르초 악곡이 흐르는 2악장에는 무덤덤하게 듣던 사람들일지라도 단번에 매혹된다. 가슴을 완전히 녹이는 3악장 라르게토 아 카프리치오(Larghetto a capriccio)는 오페라적인 정교한 피아노 작법의 가능성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쇼팽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4악장에서는 주제의 푸가적 발전을 끌고 가는 훔멜의 놀라운 솜씨에 또 한번 매료된다. 이 작품이 불혹을 넘긴 천재 음악가의 작품이고, 에스테르하지 가문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던 바이마르 임기 때의 작품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 106번!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도 아름다운 소나타인데, 이 음악을 들을 때면 장혜원이 훔멜에 몰두하게 된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다. 그녀는 정교하면서도 정감이 넘치는 연주로 더 좋은 연주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든다.

장혜원 교수의 주옥같은 명연주들

음악 교육가(이화여대 음대 학장)이었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장혜원 교수의 명 녹음들! 나오는 음반마다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이든 : 피아노 협주곡 H.18-4,7,9,11
연주: 카소비아 카메라타 / 지휘: 로베르트 스탄코프스키
Naxos 8.550713
고전 레퍼토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상상력으로 빚어낸 명연주. 액스, 플레트네프, 다비도비치 등 세계 최고 명연주가들의 음반과 당당히 겨룰만한 아이템. 장교수 특유의 명료한 음색과 우아한 칸타빌레가 일품이다.

바흐 : 협주곡집 Vol.1
연주: 카소비아 카메라타 / 지휘: 로베르트 스탄코프스키
Naxos 8.550422
깔끔한 아티큘레이션이 돋보이는 이 두 음반은 피아노로 연주한 바흐 협주곡 가운데 최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평가, 애호가들로부터 '베리 베리 굿', '위대한 연주' 라고 극찬 받았던 장혜원 피아니즘의 금자탑! 아마존 음악애호가들 평가 모두 "별 다섯!"

바흐 : 협주곡집 Vol.2
연주: 카소비아 카메라타 / 지휘: 로베르트 스탄코프스키
Naxos 8.550423
깔끔한 아티큘레이션이 돋보이는 이 두 음반은 피아노로 연주한 바흐 협주곡 가운데 최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평가, 애호가들로부터 '베리 베리 굿', '위대한 연주' 라고 극찬 받았던 장혜원 피아니즘의 금자탑! 아마존 음악애호가들 평가 모두 "별 다섯!"

훔멜 :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
연주: 부다페스트 실내 오케스트라 / 지휘: 타마슈 팔
Naxos 8.550837
훔멜 피아노 협주곡의 결정판! 지금은 여러 명연주가들이 이 곡에 도전해 좋은 결과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 음반이 나올 당시만 해도 이 연주보다 주목되는 것은 거의 없었다. 섬세하고 세련된 색채, 눈부신 피아니즘이 무척 아름답다.

스카를라티 : 건반악기 소나타 Vol.1
연주: 장혜원(피아노)
Naxos 8.554779
폭넓은 다이내믹 레인지, 대담한 리듬으로 스카를라티 건반 예술의 정수를 들려주는 음반. 우아하고 섬세한 프레이징, 힘찬 도약, 야릇하고 절묘한 표정 등 곡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준다.

스카를라티 : 건반악기 소나타 Vol.2
연주: 장혜원(피아노)
Naxos 8.554780
폭넓은 다이내믹 레인지, 대담한 리듬으로 스카를라티 건반 예술의 정수를 들려주는 음반. 우아하고 섬세한 프레이징, 힘찬 도약, 야릇하고 절묘한 표정 등 곡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준다.

이베르 : 피아노 작품집
연주: 장혜원(피아노)
Naxos 8.554720
장교수는 좀처럼 연주되지 않는 프랑스 현대 작곡가 자크 이베르의 피아노 음악에도 도전했었다. 고전 음악 레퍼토리에 주력해온 그녀로서는 아주 특별한 선택이었지만, 레퍼토리 개척자로서의 이미지와 함께 대체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중평이다.

훔멜 : 피아노 소나타 1집
연주: 장혜원(피아노)
Naxos 8.553296
훔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는 정교함과 우아함이었는데, 장교수의 연주는 훔멜의 음악적 이상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했다. 화려한 악구는 물론 귀중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느린 악장의 연주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다.

훔멜 : 피아노 소나타 2집
Naxos 8.557444
훔멜은 모차르트가 돈도 받지 않고 가르쳤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지녔던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였다. 이 음반에 실린 그의 피아노 소나타는 하이든의 이디엄에서 보다 기교적인 측면을 강조한 작품으로 옮아가던 시기의 작품들이다. 따라서 하이든 시대의 고전적인 맛뿐만 아니라 쇼팽 시대의 음악 같은 맛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피아니스트 장혜원 교수가 2003년 9월에 캐나다에서 녹음한 것이다.

훔멜 : 피아노 소나타 3집
Naxos 8.557682
이 3집을 통해 장혜원은 훔멜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이미지를 굳혔다.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해맑은 악상과 쇼팽, 리스트의 기교적인 화려함이 적절히 배합된 훔멜의 소나타들을 1,2집처럼, 경쾌한 터치와 리드미컬한 연주로 맑게 들려준다.

–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Naxos New Releases

Naxos 8.557429

Brahms: Symphony No. 2 & Hungarian Dances

London Philharmonic / Marin Alsop

알소프의 브람스 교향곡 시리즈 2탄
본머스에 이어 볼티모어 심포니의 음악감독을 맡으며 대서양 양단에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마린 알소프. 큰 인기를 얻었던 교향곡 1번에 이어 그녀의 브람스 교향곡 사이클의 두 번째 음반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여백을 메우는 8편의 헝가리 춤곡도 알차다.

Naxos 8.557490

Rameau: Platee, Dardanus Pigmalion Suites

European Union Baroque Orchestra / Roy Goodman

바로크 스페셜리스트 로이 굿맨이 지휘하는 라모 관현악 작품집
라모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려한 관현악법의 대가였다. 그의 대표작 세 작품(플라테, 피그말리온, 다르다뉘)에서 발췌한 다양한 춤곡들을 엮은 이 음반에서 옛 거장의 탁월한 솜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Naxos 8.557571

Haydn: Symphony Nos.1–5

Sinfonia Finlandia / Patrick Gallo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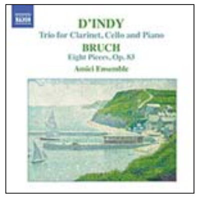
명 플루티스트 패트릭 갈르와, 지휘자로 변신하다.
파파 하이든의 극초기 교향곡 5편을 한자리에 모았다. 프랑스의 명플루티스트 갈르와가 지휘봉을 잡았고, 창단 반세기를 맞는 신포니아 핀란디아의 활기찬 연주가 청년기 하이든의 유쾌발랄한 악상을 한껏 펼쳐나간다.

Naxos 8.557809

Goran Krivokapic Guitar Recital

Werthmuller, JS Bach, Scarlatti, Bogdanovic

2004년 미국 기타재단 콩쿠르 우승자, 크리보카피치의 데뷔 레코딩.
베르트뮐러의 피아노소나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스카를라티의 건반소나타들이 기타의 통통 튀는 사운드로 재포장되었고, 동향 세르비아의 현대작곡가 보그다노비치의 작품이 함께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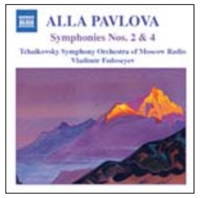


Naxos 8.557347

Bruch: 8 Pieces & D'indy: Clarinet Trio

Amici Ensemble

가을의 갈색향기를 머금은 클라리넷과 첼로의 대화.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라는 다소 특이한 편성의 삼중주 두 편을 함께 담았다. 낭랑한 클라리넷의 비음과 그윽한 첼로의 저음이 기막힌 소리의 조화를 만들어낸다. 가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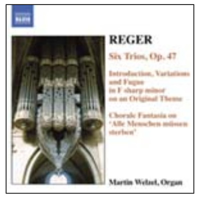


Naxos 8.557566

Pavlova: Symphony No. 2 & 4

Tchaikovsky Symphony of Moscow Radio / Vladimir Fedoseyev

러시아의 용장 페도세예프, 드디어 낙소스에 모습을 드러내다!!!
파블로바의 거대한 스케일의 두 교향곡은 보수적인 조성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새 천년을 위하여'라는 부제의 웅대한 2번은 물론, 오르간의 장중한 음향이 함께 펼쳐치는 4번 모두 현대음악에 대한 편견을 지워버린다.



Naxos 8.557338

Reger: Organ Works Vol.6

Martin Welzel, Organ

바흐 이후 최고의 독일 오르간 음악 작곡가 레거.
자신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바흐의 전통을 계승한 작품들인 코랄 '모든 이는 반드시 죽나니'에 기초한 코랄 환상곡과 여섯 트리오가 함께 수록되었다. 독일의 기대주 마르틴 벨첼이 트리어 대성당 오르간을 연주하였다.

Naxos 8.557494

Martinu: Songs

Olga Cerna, Mezzo-soprano / Jitka Cechova, Piano

독특한 매력의 마르티누의 가곡들
20세기 전반의 체코를 대표하는 대작곡가 마르티누는 관현악 레퍼토리들이 특히 유명하다. 상대적으로 그의 가곡들은 과소평가되고 있으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친근한 선율의 4곡의 동요를 비롯하여 민족색채와 근대성이 교묘하게 결합된 개성적인 매력들이 두 귀를 유혹한다.

Naxos 8.557587

Ifukube: Sinfonia Tapkaara etc

Ekaterina Saranceva, Piano / Russian Philharmonic / Dmitry Yablon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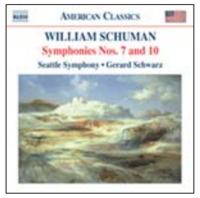
아키라 이푸쿠베(b.1914)는 오리지널 '고질라'의 음악을 맡았던 인물로 리듬지향적이고 드라마틱한 음악들을 남겼다. 대표작인 탑카라교향곡은 아이누 족의 전통춤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작곡가의 역동적인 음악 스타일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교향적환상곡은 고질라 등의 영화음악들을 엮은 작품.

Naxos 8.669003-04(2CDs)

Adams: 'I was looking at the ceiling…

Young Opera company Freiburg / Holst Sinfonietta / Klaus Simon

존 아담스의 락 밴드를 위한 오페라.
'나는 천정을 쳐다보다 하늘을 보았네' 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존 아담스의 두 걸작오페라 '중국의 닉슨', '클링호퍼의 죽음' 과 달리 전자음향이 가미된 필립 글래스 풍의 미니멀한 반주 위로 뮤지컬 스타일의 노래들이 흥미진진하게 이어진다. 진정한 크로스오버 음반.



Naxos 8.559255

W. Schumann: Symphony Nos. 7 & 10

Seattle Symphony / Gerard Schwarz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심포니스트 윌리엄 슈만의 주요 교향곡 2편.
낙소스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W 슈만의 교향곡 음반. 1960년에 완성된 7번은 보스톤 심포니 설립 75주년을 기념하여 위촉된 작품이며, 작곡가의 마지막 교향곡인 10번은 1976년 미국의 개국 2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심장한 작품이다.

Naxos 8.559419

A Jewish Celebration in Song

Vienna Choir Boys / Vienna Chamber / Gerald Wirth

빈 소년합창단이 노래하는 미국 유태 합창곡들.
빈 소년합창단과 예수살렘 대회당의 수석 칸토르인 나프탈리 헤르스틱의 만남. 두 미국의 유태계 작곡가인 칼립과 카플란의 작품은 민족음악의 전통을 충실히 반영한 것들로 왠지 우리들에게도 낯익은 듯한 이국적인 선율들로 채워져 있다.

The Romantic Harp

Judy Loman,Harp

하프로 연출해낸 낭만적인 음악세계

하프만큼 로맨틱이라는 형용사와 잘 어울리는 악기가 또 있을까? 로맨틱 하프 레퍼토리의 정수를 이 음반에 담았다. 토론토 심포니 하프 수석출신의 쥬디 로만은 커티스 음악원과 토론토 대학에서 교육자로도 활동중인 아티스트이다.

Naxos 8.554561

Hummel: Piano Sonata Nos.1,7,8,9

장혜원, Piano

장혜원 선생의 훔멜 소나타 시리즈 최신보.

낙소스를 통해 훔멜 스페셜리스트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 연주자 장혜원.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해맑은 악상과 쇼팽, 리스트의 기교적인 화려함이 적절히 배합된 훔멜의 소나타들을 경쾌한 터치와 리드믹한 연주로 들려준다.

Naxos 8.557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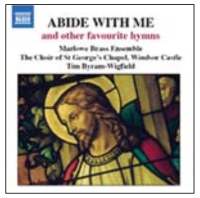
A Christmas Choral Spectacular

Bournemouth Symphony & Chorus / Peter Breiner

SACD로 큰 인기를 누렸던 음반. 일반 CD로 다시 등장하다.

낙소스의 재간둥이 편곡자 페터 브라이너가 고금의 유명한 캐롤들을 화려하게 편곡한 이 음반은 이미 SACD 및 DVD-Audio로 큰 인기를 누렸던 베스트셀러이다. 다가오는 성탄시즌에 가장 어울리는 음반이 될 것이다.

Naxos 8.557585



Abide with Me & other Favourite Hymns

Choir of St George's Chaple, Windsor Castle / Tim Byram-Wigfield

합창음악의 전통은 영국 성공회의 큰 자산이다. 영성 넘치는 여러 텍스트들과 아름다운 선율이 결합된 이들 찬가들은 감상 목적으로도 흠잡을 곳이 없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윈저성 성 조지 채플 합창단의 담백한 앙상블이 찬가들의 영롱한 아름다움을 한층 배가시킨다.

Naxos 8.557578

Respighi: Orchestral Suite etc.

Slovak Radio Symphony / Adriano

로마 삼부작' 이전의 작곡가의 초기 관현악곡을 담았다. 스승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법을 한층 더 발전시켰던 작곡가의 역량이 이 때부터 위력을 드러낸다. 교향곡을 염두에 두고 완성한 대작인 모음곡은 물론, 생상 교향곡 3번을 능가하는 오르간과 관현악의 한판승부를 담은 교향변주곡도 주목할만하다.

Naxos 8.557820

Lutoslawski: 20 Polish Christmas Carols

Olga Pasichnyk, sop / Polish Radio Symphony & Chorus / Antoni Wit

루토스와프스키의 두 가지 모습.

내놓는 음반마다 찬사를 받았던 루토스와프스키 시리즈가 오랜만에 신보를 등장시켰다. 폴란드 캐럴과 라크리모사는 루토스와프스키의 작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유려한 멜로디와 붙임성 좋은 모양새를 갖춘 반면, 다섯 편의 노래는 작곡가 특유의 실험정신이 가미된 작품.

Naxos 8.555994

Rubbra: Violin Concerto etc.

Krysia Osostowicz, Violin / Ulster Orchestra / Takuo Yuasa

20세기 영국 작곡가 에드문트 러브라는 11편의 교향곡과 더불어 다수의 합창음악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 그가 남긴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은 단순한 독주자의 기교과시적인 요소를 넘어서서 관현악의 한 부분으로 일체화된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2악장 '포에마'의 명상적인 아름다움이 각별하다.

Naxos 8.557591

Dunstable: Masses & Motets

Tonus Peregrinus

중세/르네상스 전환기의 영국은 대륙을 능가하는 폴리포니의 최선진국이었다. 당시 영국을 대표하던 작곡가가 바로 던스터블이다. 각종 음악사관련 서적들에서 르네상스 다성종교합창곡의 시금석으로 언급되던 유명한 모테트 '오소서 창조주의 성령이여'를 비롯한 작곡가의 대표적인 미사와 모테트가 수록되었다.

Naxos 8.557341

Turina: Piano Music Vol.2

Jordi Maso, Piano

투리나는 알베니스, 그라나도스, 파야의 뒤를 이어 스페인의 근대 피아노 레퍼토리를 풍성하게 만들었던 주역이었다. 본 음반에는 스페인 민속음악에 기초한 '로맨틱 피아노 소나타'와 느린 도입부가 각별히 아름다운 '환상소나타', 화려한 피아니즘의 결정판인 '관현악 없는 협주곡' 등이 수록되었다.

Naxos 8.557438

Still: Piano Music (Africa, 7 Traceries etc)

Mark Boozer, Piano

자신의 뿌리를 향한 아프로-아메리칸의 피아노 작품들.

스틸은 미국 흑인작곡가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일 것이다. 그는 블루스, 흑인영가, 재즈 등의 흑인 특유의 음악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작품 속에 반영시켰는데, 피아노작품들 역시 이러한 작곡가의 음악적 성격을 드러낸다.

Naxos 8.559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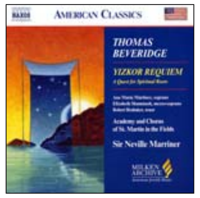
Bauer: Orchestral & Chamber Works

Ambache Chamber Orchestra & Ensemble

나디아 블랑제의 제자였던 미국 여류작곡가 마리온 바우어의 작품집.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은 다양한 장르만큼이나 변화무쌍한 작곡가의 음악적 취향을 고루 반영한다. 특히 흑인들의 선율에 기초한 라멘트와 미국의 다양한 파퓰러 음악들을 엮은 아메리카 유스 콘체르토 등이 주목할만하다.

Naxos 8.559253



Beveridge: Yizkor Requiem

Academy & Chorus of St. Martin in the Fields / Sir Neville Marriner

유태교와 로마 카톨릭, 두 종교를 가로지르는 비버리지의 문제작.

유태교와 카톨릭의 추모전례를 의미하는 두 단어로 구성된 이즈코르 레퀴엠이라는 작품의 제목에서부터 두 종교를 아우르는 이 작품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네빌 매리너 경과 성 마틴 인 더 필드를 낙소스에서 만나게 된 점도 반갑다.

Naxos 8.559453

Naxos Historical

Naxos 8.110305

Boccherini, Haydn, Elgar Cello Concerto

Pablo Casals, Cello / London Symphony / Adrian Boult

카잘스가 연주하는 엘가 협주곡과 콜 니드라이.
엘가 협주곡은 아드리안 볼트/BBC 심포니와 협연한 1945년 녹음. 콜 니드라이는 란돈 로날드/런던 심포니와 협연한 1936년 기록이다. 보케리니 협주곡과 3악장을 녹음하지 않아 불완전한 형태인 하이든 협주곡을 함께 담았다.

LPO New Releases(런던 필 레이블 LPO)

***클래식 강국 영국의 자존심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자체 레이블 LPO Classics의 새로운 음반들.
(SACD와 일반CD가 동일가격입니다)

LPO 0005

Hybrid SACD – 4.0 Channel Surround/Stereo

Paavo Berglund conducts Sibelius
Jean Sibelius : Symphony Nos. 2 & 7

이 시대 최고의 시벨리우스 스페셜리스트인 핀란드 출신의 거장 파보 베르글룬트의 최신 시벨리우스 교향곡집. 작곡가의 가장 인기높은 교향곡 두 편을 모았습니다. (2번: 2005/02/16 live, 7번: 2003/12/06 live)

"교향곡 2번은 압도하는 힘과 불타는 열정이 가득한 연주다" – The Guardian

"베르글룬트가 지휘한 교향곡 7번은 파워와 응집력 면에서 매우 훌륭하다." – Independent

LPO 0006

The Founding Years of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sir Thomas Beecham Conducts The LPO

Sibelius: Tempest
Mozart: Symphony No.35
Chabrier: Espana etc.

런던 필의 창립 직후인 1934년 리즈 페스티벌에서의 연주와 1939년의 녹음인 모차르트 교향곡 35번을 유명한 복각 전문가 마이클 듀튼의 손을 거쳐서 복원한 음반이다. 런던 필의 창립 초기와 그들의 대부 비첨 경의 모습을 담은 귀중한 기록으로 우수한 복각 덕분에 녹음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음향을 담고 있다.

기존 발매 음반

LPO 0001

Kurt Masur
Shostakovitch
Symphony Nos. 1 & 5
Hybrid-SACD

LPO 0004

Vladimir Jurowski
Rachmaninov
Symphonic Dance
The Isle of Dead
Hybrid-SACD

LPO 0003

Klaus Tennstedt
Wagner
Orchestral excerpts from Wagner operas

LPO 0002

Bernard Haitink
Elgar & Britten
Introduction and Allegro
Enigma Variations
Our Hunting Fathers

Melodiya New Releases

MEL CD 10 00956

Tchaikovsky : Symphony No.6 'Pathetique', Oveture 'Romeo & Juliet'

Kirill Kondrashin / Moscow Philharmonic (1965 & 67년 녹음)

거장의 역사적인 녹음 최초로 CD로 발매되었다. 기존에 발매된 두 실황음반(78년-Globe, 67년-Altus)과 다른 1965년 스튜디오 녹음이다.

MEL CD 10 00955

Tchaikovsky : Serenade for Strings & Orchestral Suite No.3

Kirill Kondrashin / Moscow Philharmonic

역시 최초로 CD로 선보이는 음원들이다. (세레나데-1959년 녹음, 모음곡-1966년 녹음)

MEL CD 10 00957

Balakirev: Symphony No.1 & Kalinnikov : Symphony No.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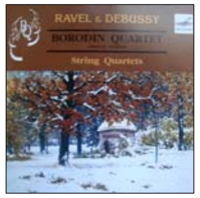
Kirill Kondrashin / Moscow Philharmonic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3악장의 모델이 되었던 발라키레프의 교향곡의 느린 악장은 러시아적 서정미의 극치를 보여주며, 요절한 천재 작곡가 칼리닌코프의 교향곡 1번은 러시아 민족주의 계열 관현악의 백미와도 같은 숨겨진 걸작이다. 마땅한 음반이 드물었지만 이제 고민은 끝났다!!!

MEL CD 10 00921

The Art of Rodion Azarkhin Vol.2

지난 음반에서 더블베이스로 '왕벌의 비행'을 기막히게 들려주었던 로디온 아자르킨의 초절기교가 다시 한번 불을 뿜는다. 이번의 도전곡은 바로 사라사테의 '치고이네르바이젠'. 더블베이스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바흐의 샤콘느, 생상의 백조, 차이코프스키의 '다만 외로움을 아는 자만이', 로시니의 '나는 거리의 이발사', 마스네의 엘레지 등을 수록.


MEL CD 10 00954

보로딘 사중주단(오리지널 멤버) 시리즈

Debussy: String Quartet, Ravel: String Quartet

Borodin Quartet (Original Members)

얼마전 내한연주를 통해 러시아 실내악의 진수를 국내 애호가들에게 선사했던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 러시아 실내악의 자존심과도 같은 이 단체의 오리지널 멤버들의 뛰어난 앙상블을 이 음반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근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작곡가의 현악사중주를 러시아적인 감수성으로 독특하게 재해석한 음반.

MEL CD 10 00958

보로딘 사중주단(오리지널 멤버) 시리즈

Schnittke: String Quartet No.1 / Stravinsky: 3 Pieces for String quartet
Shebalin: String Quartet No.5 & 9

Borodin Quartet (Original Members)

보로딘 사중주단의 오리지널 멤버들이 연주하는 현대 러시아 실내악 레퍼토리들. 슈니트케의 출세작인 현악사중주 1번,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 시대의 중요작인 현악사중주를 위한 세 편의 소품. 미야스코프스키의 뛰어난 제자였던 비사리온 셰발린(1902-1963)의 현악사중주 5번을 담았다.

MEL CD 10 00868

Russian Historicals
Tchaikovsky: Symphony No.1 'Winter Daydream', Cantata 'Moscow'

Nikolai Golovanov: Moscow Radio Symphony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과 볼쇼이 극장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러시아의 대지휘자 니콜라이 골로바노프. 최전성기였던 47과 48년의 기록으로 거장의 호방한 스케일을 목격할 수 있다. 쉽게 음반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차이코프스키의 칸타타 '모스크바'를 수록한 점 역시 값지다.

MEL CD 10 00929

Russian Historicals
Glazunov Conducts Glazunov

Ballet 'The Seasons' : Alexander Glazunov / Unknown Orchestra
Symphony No.6: Nikolai Golovanov / Moscow Radio Symphony

차이코프스키를 계승한 글라주노프의 걸작 발레 '사계'를 작곡가 자신의 연주로 수록하였다. 뛰어난 복각 덕분에 1929년이라는 녹음시기에 비해 사운드 상태가 꽤나 우수한 편이다. 작곡가의 대표적인 교향곡인 6번은 러시아 지휘계의 대부 골로바노프의 연주로 수록하였다. 사망 일년 전인 1952년 녹음으로 거장의 많지않은 음반들 중 연주와 음향 면에서 가장 우수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MEL CD 10 00876

Maestri del Arco Series

Oistrakh Plays 20 Century Concertos
Bartok: Violin Concerto No.1 – Rozhdestvensky/Moscow Radio Symphony
Hindemith: Violin Concerto – Rozhestvensky/USSR State Symphony
Szymanowski: Violin Concerto No.1 – Sanderling/Leningrad Philharmonic

Bartok & Hindemith 1962년 녹음, Szymanowski 1959년 녹음

MEL CD 10 00230

Oistrakh Plays Mozart
Violin Concerto No.3 K219 & No.7 K271a

Kirill Kondrashin / USSR Radio Symphony

1947 & 1950년 녹음

MEL CD 10 00877

Daniil Shafran
Schumann: Cello Concerto – Kondrashin / USSR State Symphony
Dvorak: Cello Concerto – Jarvi / Estonia Symphony

드보르작 협주곡은 본사에서 라이선스로 발매한 1980년 녹음과 별개인 1979년 녹음이다.

MEL CD 10 00879

Hindemith: Variation for Piano & Orchetra 'The Four Temperaments'
Piano Sonata No.1, Cello Sonata

Anatoly Vedernikov, piano, Natalia Gutman, cello
Lazar Gozman / Leningrad Chamber

러시아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아나톨리 베데르니코프의 진귀한 레코딩.
네이가우스의 제자이자 리히터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 피아니스트는 20세기 중반 격동기를 뼈저리게 체험했던 비운의 연주자였다. 부친은 스파이혐의로 체포되고 모친은 강제수용소에 갇혔으며 자신도 당국의 지시로 공개연주가 한동안 금지되었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자신의 음악성을 제대로 꽃피워보지 못한채 명성만이 간신히 이어져 오던 이 피아니스트의 진가를 이 음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힌데미트의 재기발랄한 협주곡 풍 변주곡인 '네가지 기질'은 음반이 많지 않던 작품이어서 이 음반이 더욱 반갑다. 첼로소나타에서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여류 첼리스트 나탈리 구트만과 협연하였다.

MEL CD 10 00925

Evgeny Golubev (1910–1988)
Piano Concerto No.3, Piano Sonata No.4

Tatiana Nikolaeva, piano / Nikolai Anosov, cond. / USSR Symphony

미야스코프스키와 프로코피에프의 애제자였던 러시아 작곡가 에프게니 골루베프는 니콜라에바, 쉬니트케, 골로빈 등을 길러낸 명교사이기도 했다. 그의 마지막 피아노협주곡은 제자 니콜라에바에게 헌정한 작품으로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에프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한 곡이다. 초연자이자 헌정 당사자인 니콜라에바의 강렬한 연주와 더불어 로제스트벤스키의 아버지인 대 지휘자 아노소프의 지휘솜씨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MEL CD 10 00960

Andrei Golovin (b.1950)
Musical Fair Tale 'Bambi', Other Chamber Works

Bolshoi Soloists Ensembel, Arpeggione Quartet, Alexander Rudin, cello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골루베프를 사사한 안드레이 골로빈은 러시아 본토의 현역 작곡가들 중에서 가장 왕성한 작품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다. 1996년 작품인 오페라 '첫사랑'이 큰 화제를 모았고,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자신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펼쳐가고 있다. 본 음반의 중심은 디즈니 만화로 유명한 사슴이야기 '밤비'를 소재로 한 작은 음악동화. 그 외에도 현악사중주를 비롯한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 소품들이 음반을 채우고 있다. 첼로와 현악합주를 위해 편곡한 바흐–구노의 아베마리아에 주목하시라.

MEL CD 10 00947

Special Box Set
Mikhail Vaiman Box Set (6CDs)

CD1	Bach: Violin Sonata BWV1023, Violin Concerto BWV1042 Voloshinov: Concerto for violin & organ with Lonid Gozman / Leningrad Chamber (1976, 1963년 녹음)
CD2	Bach: 2 Violin concerto BWV1043, Telemann: Violin concerto No.44, Vivaldi: Concerto Op.3–3, 6, Haydn: Violin Concerto Hob.18
CD3	Telemann: Violin concerto suite, Vivaldi: Concerto A major, Haydn: Violin concerto Hob.7a
CD4	Bartok: Violin Sonata No.1, 6, Sarasate: Zigeunerweisen, Yevlakhov: Concerto Poem
CD5	Mozart: Violin Concerto No.5, Sibelius Violin Concerto with Arvid Jansons / Leningrad Philharmonic
CD6	Beethoven: Violin Sonata Nos. 7 & 10 with Maria Karandashova, piano

1951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석권하기 위해 스탈린이 파견했던 두 비밀병기가 있었으니 바로 레오니드 코간과 미하일 바이만이었다. 이들은 나란히 1,2위를 차지하였고, 오이스트라흐의 뒤를 잇는 두 소련의 자존심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미하일 바이만(1926–1977)은 서방에서는 지명도 면에서 오이스트라흐나 코간의 화려한 명성에 가려진 느낌이 있으나 카간, 트레챠코프와 더불어 구소련을 대표하는 명연주자였다. 그는 또한 로스트로포비치 트리오의 일원이었으며, 레닌그라드 음악원의 명교사로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1977년 연주여행 중에 급서하였는데, 그의 많지 않은 레코딩들을 이 박스 세트에 모았다. 동시대 연주자들에 한발 앞서서 바로크 음악에 심취했던 바이만의 폭넓은 음악관이 잘 나타나있으며, 특히 거장 아르비드 얀손스와 함께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주목할 만한 명연이다.

KKV(Kirkelig Kulturverksted) New Releases

FXCD 293

카리 브렘네스: 도시 너머로

스칸디나비아의 '노래하는 여류 시인'
노르웨이 가수 특유의 부드럽고 감각적인 미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히르켈리히에서 모두 8장의 CD를 냈던 매혹적인 가수 카리 브렘네스가 내놓은 9번째 앨범. 가수이자 노래 작곡가인 그녀는 이 앨범에서도 자신이 직접 모든 음악을 썼고 시 수준의 가사까지도 만들었다. 이 앨범에서 그녀의 노래는 이전 음반보다 기교적인 면이나 음악적 영감 면에서 한층 더 성숙해졌다.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로 구성된 그녀의 밴드는 새벽 안개처럼 혹은 저녁의 노을처럼 깔리는 감미로운 노래들을 완벽하게 반주한다. 무심코 그녀의 음반을 집어 들었다가 완전히 매료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음반도 그럴 것이다. 한 곡 한 곡이 시를 읊는 것 같고, 그윽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로 가득하다. 강력 추천한다!

Concord New Releases

데이빗 베노아 〈Charlie Brown Christmas: 40 Years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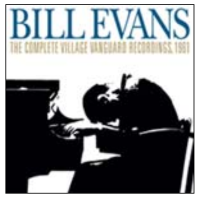
빈스 과랄리의 〈A Charlie Brown Christmas〉 앨범 발매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데이빗 베노아의 기획하에 팝과 재즈의 슈퍼스타가 총출동한 스페셜 앨범! 토니 브랙스톤, 브라이언 맥나잇, 바네사 윌리암스, 사카 칸은 물론 데이브 코즈, 노먼 브라운, 릭 브라운, 리핑턴스, 에릭 마리엔탈 등 참여 뮤지션의 이름만으로 앨범의 가치는 충분한 듯. 컨템포러리 재즈, R&B, 재즈 등 빈스 과랄리의 원곡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였다.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지닌 2005년 최고의 크리스마스 앨범!

PKD 85342

다이앤 리브스 〈Good Night, and Good Luck〉

〈친절한 금자씨〉와 함께 2005 베니스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 조지 클루니 감독의 영화 〈굿 나잇 앤 굿 럭〉의 영화 음악으로, 현 재즈계를 대표하는 여성 보컬리스트 다이앤 리브스가 영화에 노래하였던 작품들과 새로운 레코딩이 수록된 그녀의 새로운 앨범! 특히 피아노 트리오에 색소폰이 가미된 퀴텟이 반주를 맡은 이번 작품은 블루노트에서 선보인 완성도 높은 작품성에다 마치 심야의 어느 재즈 클럽에 있는 듯 고즈넉한 분위기가 감수성을 강하게 자극한다. 2005년 가장 돋보이는 정통 재즈 보컬 앨범으로 손색이 없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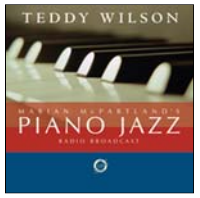
CCD 23072



빌 에반스 〈The Complete Village Vanguard Recordings, 1961〉

지금까지 빌 에반스의 대표작으로 명반으로 손꼽히는 두 장의 앨범 〈Waltz For Debby〉와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은 모두 1961년 6월 25일 빌리지 뱅가드에서 열렸던 전설의 트리오 ? 스콧 라파로, 폴 모션의 연주 실황을 선별적으로 담은 작품들로 그 날 벌어졌던 재즈사에 기록되어 있는 명연의 온전한 모습은 여태껏 미공개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그 긴 공백을 깨고 6월 25일 빌리지 뱅가드에서 벌어진 공연의 모든 것이 세 장의 앨범으로 구성된 박스셋으로 발매가 되었다. 2005년 전세계 재즈계 최고의 이슈이자 빌 에반스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앨범! 재즈, 빌 에반스, 피아노 이 세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주저없이 이 작품을 소장해야만 할 것이다.

RCD 4443(3CDs)



마리안 맥파틀랜드 〈Piano Jazz With Guest Teddy Wilson〉

전설의 스윙 피아니스트와 만남

미국 재즈 피아니스트계의 대모, 마리안 맥파틀랜의 라디오 프로그램 'Piano Jazz'의 초대손님으로 초창기 재즈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스윙 피아니스트 테디 윌슨이 참여하였다. 베니 굿맨, 빌리 할러데이, 진 크루파 등 거장들과 함께 하였던 그의 화려한 경력이 입증하듯 말년에 이르러서도 경쾌한 스윙감이 넘치는 연주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당시 재즈 거장들과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접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선물!

TJA 120522

마리안 맥파틀랜드 〈Piano Jazz With Guest Bruce Hornsby〉

재즈를 사랑한 싱어송라이터 브루스 혼스비와의 대화

미국 재즈 피아니스트계의 대모, 마리안 맥파틀랜의 라디오 프로그램 'Piano Jazz'의 초대손님으로 미국이 자랑하는 걸출한 싱어송라이터이자 피아니스트이자 과거 그레이트풀 데드의 멤버였던 브루스 혼스비가 참여하였다. 그의 대표곡 'King of the Hill' 'The Way It Is'의 색다른 버전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빌 에반스의 영향을 비롯한 음악에 대한 그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브루스 혼스비의 음악을 이해하는 안내서로 손색이 없다.

TJA 120512

마이클 파인스타인 & 조지 쉬어링 〈Hopeless Romantics〉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피아노와 보컬의 만남

3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각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냇 킹 콜, 낸시 윌슨, 페기 리, 멜 토메 등 수많은 거장들과 협연을 통해 깔끔하면서 흥겨운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었던 조지 쉬어링! 그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브로드웨이, 재즈 등 미국의 자랑하는 스탠다드 팝을 가장 잘 소화하는 파인스타인의 만남과 만났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이번 만남은 마치 과거 조지 쉬어링과 멜 토메만큼이나 아름답고 편안한 앙상블을 빚어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 한잔을 마시며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과도 같은 작품이다.

CCD 21522

B.J. Ward 〈Michel Feinstein Presents B.J. Ward〉

풍부한 발성과 풍부한 표현력이 빛나는 보컬 앨범

뛰어난 오페라 가수이며 만화영화의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B.J.가 마이클 파인스타인과 만나 미국 자랑하는 위대한 음악가 마샬 바레르(Marshal Barer)의 주옥 같은 명곡을 노래한다. 국내에서 친숙한 TV 만화 '마이티 마우스' 그리고 브로드웨이의 걸작 뮤지컬 'Once Upon A Mattress'의 대표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탄탄한 발성과 풍부한 표현력은 아무리 극찬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FCD 31032

마일즈 데이비스 〈Prestige Profiles Series〉

1951년부터 1956년까지 마일즈 데이비스가 프레스티지 레이블에서 발표한 최고의 연주만을 선별하여 수록한 컴필레이션! 당시 그는 존 콜트레인-레드 갈란드-폴 체임버스 ? 필리 조 존스로 이루어진 재즈사상 최고의 퀸텟과 함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이들과의 전설적인 연주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소니 롤린스, 호레이스 실버를 비롯한 여러 거장들과의 협연도 수록되어 있다. 쳇 베이커, 소니 롤린스, 존 콜트레인 샘플 시디 보너스 수록!

PRCD 58012

레드 갈란드 〈Prestige Profiles Series〉

레드 갈란드는 마일즈 데이비스 퀸텟의 피아니스트 혹은 자신의 이끌던 피아노 트리오의 리더로 유명하지만 트럼펫터 도날드 버드와 존 콜트레인과 함께 퀸텟을 조직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번 컴필레이션은 그동안 비교적 조명을 받지 못해왔던 레드 갈란드 퀸텟의 정규 혹은 라이브 연주를 모아놓은 작품으로 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일즈 데이비스, 델로니우스 몽크, 존 콜트레인 샘플 시디 보너스 수록!

PRCD 58022

소니 롤린스 〈Prestige Profiles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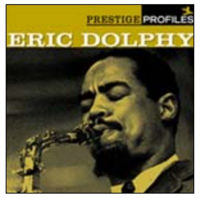
소니 롤린스야말로 초창기 데뷔시절부터 〈Saxophone Colossus〉로 대표되는 전성기를 구가하기까지 프레스티지와 함께 한 대표적인 뮤지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컴필레이션은 명실상부한 국내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니 롤린스의 대표곡이 수록된 베스트 음반으로 존 콜트레인, 델로니우스 몽크, MJQ와 함께 했던 그의 남성적이며 공격적인 스타일의 연주를 만날 수 있다. 마일즈 데이비스, 클리포드 브라운, 덱스터 고든 샘플 시디 보너스 수록!

PRCD 58032

코울먼 호킨스 〈Prestige Profiles Series〉

테너 색소폰의 아버지로 불리는 코울먼 호킨스는 비록 스윙시대를 대표하는 뮤지션이었지만 모던 재즈에 이르러서도 거장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 특히 그는 프레스티지 레이블을 통해 레이 브라이언트, 토미 플래너건, 레드 갈란드와 같은 뛰어난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블루스, 스윙에서 발라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선사하였다. 진 아몬스, 일리노이스 자켓, 스탄 게츠, 와델 그레이, 벤 웹스터 샘플 시디 보너스 수록!

PRCD 58052



에릭 돌피 〈Prestige Profiles Series〉

1964년 세상을 떠난 불운의 거장, 에릭 돌피의 최고작이라 손꼽히는 작품들은 하나같이 프레스티지에서 발매가 되었다. 그러기에 이번 컴필레이션은 그의 음악세계에 접근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알토 색소폰, 베이스 클라리넷, 플룻 등 만능연주자로서의 그의 역량과 프레디 허바드, 부커 리틀, 재키 비야드등과의 협연을 통해 시대를 앞선 선각자의 면모를 만나게 된다. 부커 어빈, 유세프 라티프, 돈 체리, 론 카터 샘플 시디 보너스 수록!

PRCD 58062

재키 매클린 〈Prestige Profiles Series〉

1956년부터 1957년 사이 '리틀 자이언트' 라 불리던 알토 색소포니스트 재키 매클린은 프레스티지에서 뜨거운 창작욕을 불사르며 찰리 파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비록 그의 전성기는 블루노트 시절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4,5 and 6〉와 같은 걸작이 바로 이때 발표되었다. 한 마디로 재키 매클린의 음악세계가 열리는 여명기를 담은 컴필레이션! 리 코니츠, 제임스 무디, 아트 테이텀, 소니 크리스, 필 우즈 샘플 시디 보너스 수록!

PRCD 58062

케니 버렐 〈Prestige Profiles Series〉

모던 재즈를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케니 버렐은 존 콜트레인, 도날드 버드, 토미 플래너건, 잭 맥더프, 행크 모블리 등 참으로 다양한 뮤지션들과 교류를 갖어왔다. 존 콜트레인과 함께 한 〈Kenny Burrell & John Coltrane〉을 비롯하여 프레스티지에서 발표한 앨범을 통해 스탠다드에서 오리지널에 이르기까지 그의 창조적인 즉흥연주를 만나게 된다. 탈 팔로우, 조지 벤슨, 팻 마티노, 지미 레니 샘플 시디 보너스 수록!

PRCD 58072

라이트닝 홉킨스 〈Prestige Profiles Series〉

1982년 세상을 떠난 위대한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였던 라이트닝 홉킨스는 블루스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거장중의 거장으로 블루스맨의 전형이었다. 특히 프레스티지를 통해 그가 발표한 무수히 많은 앨범들은 한결같이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들로 하모니카의 거장 소니 테리와의 협연을 비롯한 여러 거장과의 만남은 블루스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윌리 딕슨, 멤피스 슬림, 오티스 스팬 샘플 시디 보너스 수록!

PRCD 58082

에디 락조 데이비스 〈Prestige Profiles Series〉

터프한 블로윙이 매력적인 테너 색소포니스트 에디 락조 데이비스는 루 도날드슨, 스탠리 터렌타인와 함께 소울 재즈의 거장으로 올갠 연주가 셜리 스콧이 이끄는 트리오와 함께 50년대말 대단한 인기를 구가하였다. 특히 테너 색소폰과 올갠의 소울 재즈의 전형적인 구성으로 당시 프레스티지에서 발표한 Cookbook 시리즈는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니 스팃, 잭 맥더프, 휴스턴 퍼슨, 롤랜드 커크 샘플 시디 보너스 수록!

PRCD 58102

Prophone New Releases

주카 톨로넨 Cool Trane: Tolonen Plays Coltrane!

카를로스 산타나, 존 메이올의 극찬! 40장의 넘는 앨범을 통해 찰리 말리아노, 조아킴 쿤 등과 같은 유명 재즈 뮤지션과 활동해왔던 핀란드 출신의 베테랑 기타리스트 주카 톨로넨의 존 콜트레인 헌정 음반! 학구적이며 진보적인 코드웍 보다는 어쿠스틱 기타, 일렉트릭 기타를 넘나드는 변화무쌍한 톤의 변화와 다양한 테크닉이 돋보이는 수작! 'Giant Steps' 'Naima' 'Afro Blue' 등 콜트레인의 연주와는 또 다른 독특함을 만나보기 바란다.

PCD 083

V.A. 〈Swedish Songbi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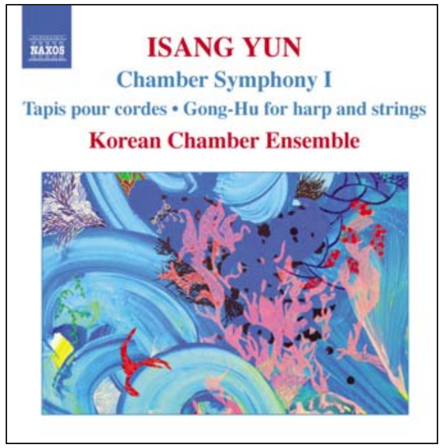
프로폰 레이블이 자랑하는 북유럽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들을 한 장에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 ACT 레이블의 〈Magic Voices〉에 필적할 만한 화려한 라인업과 탁월한 선곡이 감탄을 자아낸다. 프로폰의 간판 보컬리스트 리나 니베이, 카린 룬딘, 소피아 페테르손, 알리스 밥스, 릭모어 구스타프손 등 다양한 보이스를 통해 북유럽의 이지적인 감수성에 푹 빠져보기 바란다. 프로폰 재즈 강력 추천 음반!

PCD 082

화제의 음반 | 윤이상(ISANG YUN)

낙소스에서 나온

윤이상 Chamber Symphony I



Naxos 8.557938

낙소스에서 드디어 윤이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윤이상 음반은, Camerata를 제외하면 CPO, EMI 등 몇몇 레이블을 통해 다소 산만하게 발매되었다는 느낌이 있는데, 낙소스가 앞으로도 계속 윤이상의 음반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이번 첫 음반에는 1987년 작인 '체임버 심포니 I' 를 시작으로, 윤이상이 70세 되던 해인 1987년에 작곡한 'Tapis pour cordes', 그리고 1984년 작곡해서 하피스트인 우르술라 홀리거한테 헌정했던 'Gong-Hu' 를 담았다. 폴란드 태생의 지휘자인 피오트르 보르코프스키가 지휘를 맡았고, 줄리어드 학교 출신이며 국내 유일한 하프 박사이기도 한 박라나가 하프연주를 한다. 실내악 앙상블은 '코리안 체임버 앙상블' 이다. 이 앙상블은 국내에서는 서울 바로크 합주단(음악감독 김민)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적 수준의 실내악단이다.

그 유명한 '안티폰 블루스' 돔네루스의 제 2집

안티폰 블루스 "마음 깊은 곳에서(Heartfelt)"

Proprius PRCD 9110

연주: 아르네 돔네루스(색소폰&클라리넷)
구스타프 스웨비스트(오르간)
루네 구스타프손(기타)

오디오파일 음반의 전설 '안티폰 블루스'의 후속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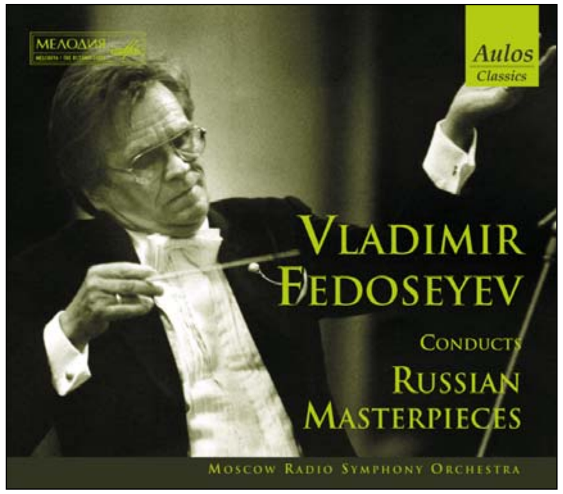
'안티폰 블루스'의 스웨덴 색소폰 연주자 아르네 돔네루스가 후속 작으로 내놓은 음반이다. 많은 애호가들이 알고 있듯이 아르네 돔네루스는 탁월한 재즈 색소폰 연주자인 동시에 발군의 클라리넷 연주자인데, 우선 첫 트랙 '오 하나님,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여(O Gud all sannings kalla)'에서 아르네가 자신의 클라리넷 실력을 한껏 뽐내며 시작한다. 오르간의 깊은 저음 위에서 신을 찬미하는 기쁨을 나타낸 듯 경쾌한 리듬의 클라리넷이 매력적으로 노닌다. 원곡은 스웨덴 중부에 있는 옛 달레카를리아 지방의 코랄로, 처음엔 무덤덤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음악적인 아름다움이 각별해서 금방 깊은 감동의 늪에 빠진다. 이어지는 '개구리가 있는 연못에서(Vid groddammen)'란 곡에서 아르네의 색소폰은 조금 쓸쓸해 보이는 기타의 선율 위에서 커다란 슬픔에 잠긴다. 다음 트랙은 듀크 엘링턴의 유명한 '양치기(The Shepherd)'. 위대한 재즈 아티스트의 작품은 두 곡(Somebody cares, Mood Indigo) 더 이어지고, 좀 떨어져서 다시 한 곡, '내 가슴속에서 노래를 내보내고 싶네'로 다시 나타난다. 엘링턴의 이런 선율과 함께 깊은 명상에 잠기며 뉴올리언즈의 장례행렬을 연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중적인 클래식 명곡들도 묘한 분위기의 재즈음악으로 변신했다.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두 곡은 기타와 오르간, 색소폰과 오르간으로 연주된다. 높은 멜로디도 분위기 만점이지만, 신음소리 같은 오르간의 저음은 사람의 육성 같아 인상적이다. 포레의 '시실리엔'에서 아르네의 색소폰은 나른할 정도로 유연한데, 관악기로도 이 명곡을 맛깔스럽게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즐겁다. 명재즈 피아니스트 오스카 피터슨의 명곡 '자유의 찬가(Hymn to Freedom)'도 이 음반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데, 이 트랙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 들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오르간 독주로 연주되는 태드 존스의 발라드 '아기 태어나시고(A Child is Born)'는 간결하지만 사랑스럽다. 듀크 엘링턴의 오른손이었던 빌리 스트레이혼의 '오늘밤 잘거야(Tonight I Shall Sleep)'을 들을 때쯤 되면 밤이 깊어 잠을 자야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 음반을 듣는 시각이 깊은 밤이라면 여기까지 듣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타, 오르간, 색소폰이 총출동하여 대 단원의 막을 고하는 '그들이 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스웨덴의 톱클래스 재즈 뮤지션 아르네 돔네루스! 들으면 들을수록 참으로 노련하고 완벽한 연주를 들려준다. 역시 젊은 연주가의 솜씨가 아니었다. 이 음반을 녹음할 당시인 1994년의 그의 나이는 70세였다. 오디오 숍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 '안티폰 블루스'였다. 물론 그 프로프리우스 음반이 좋은 기기로 손님을 미혹시키기 딱 좋을 정도의 탁월한 음향을 자랑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음반이 또 한번 하이엔드 음향기기를 가지고 있는 애호가들을 열광시킬 것은 확실하다.

러시아의 뜨거운 심장, 심오한 음악성의 지휘자

페도세예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오케스트라 음악들



AMC2-060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는 193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지휘자다. 모스크바 그네신 음악원에서 공부했고,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레오 긴즈부르크 교수한테 배웠다. 1971년에 예프게니 므라빈스키가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로 등장시키면서 러시아 지휘계의 새로운 별로 소개되었다. 므라빈스키가 마련해준 콘서트의 객원지휘가 대단한 호평을 받자, 페도세예프는 많은 초청을 받게 되어 본격적으로 경력이 쌓이기 시작했다. 1974년에 페도세예프는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의 예술 감독 겸 수석 지휘자가 되었다. 그는 이 오케스트라를 거의 30년간 이끌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영국, 스페인, 미국, 남아메리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연주여행을 다녔고 대부분의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쳤다.

1997년에 페도세예프는 오스트리아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로 임명되었다. 물론 이 오케스트라와도 세계 연주여행은 계속되었고 본고장의 빈 무직페라인이나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있었던 콘서트에서는 수준 높은 빈 청중들까지 열광시켰다. 그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콘서트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쇤베르크의 〈구레의 노래〉, 베르디의 〈레퀴엠〉,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차르의 신부〉,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악 사이클 등인데, 2000년 송년 음악회에서는 베토벤의 〈장엄미사〉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바이에른 방송, 쾰른 필하모닉,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베를린 필하모닉,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그리고 프랑스의 많은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콘서트 무대에 등장해 좋은 연주를 들려줬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의 뛰어난 음악성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1996년에 페도세예프는 마침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 직도 수락해야했다. 오페라 지휘자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최근 취리히 오페라에 정규적으로 객원지휘자로 등장해서 베르디의 〈아틸라〉, 〈가면무도회〉, 〈오텔로〉, 글린카의 〈차르를 위한 삶〉 등을 무대에 올려 성공했다. 그의 지휘 스타일은 상당히 학구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어떤 것이다. 학구적인 면은 열정과 섬세함으로 빛나고, 카리스마는 형식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심오한 음악성으로 빛난다. 우리나라 애호가들에게도 페도세예프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다. 특히 이 음반에 실린 러시아 관현악곡 레퍼토리들의 대부분은 LP시절부터 많은 애호가들이 '첫 번째 선택'으로 꼽곤 했던 것들이다. 황량한 러시아 초원의 정경을 완벽한 분위기로 묘사하는 보로딘의 교향시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나 독특한 이국적 동양을 경묘한 색감으로 그려서 다른 연주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폴리토프-이바노프 〈카프카즈의 풍경〉 등 지금 들어도 참으로 신선한 호연의 음원들이 두 장의 음반에 가득 담겼다.

아울로스에서 추천하는

“이 가을에 어울리는 음반”

AMC2-003

메이브 : Silver Sea

순수한 아름다움, 그리고 안식. Meav [Silve Sea] – 켈틱음악 애호가에게 꼭 추천.
전체적으로 어쿠스틱 악기, 특히 하프의 청아함이 두드러진 본작에는 16곡이 담겨있는데, 특기할만한 것은 그 중 3곡이 전작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준 한국팬들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 담은 보너스 트랙이라는 점이다. 전작에 실렸던, 조수미의 목소리와는 차별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덕분에 듣는 이의 향수를 자극하는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민요 Green sleeves, 성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The Last Rose of The Summer가 그것들이다. 이외에 Danny Boy를 아일랜드어로 개사한 Morning is Berra, 하프 반주의 투명함과 오버 더빙,
짧은 곡의 길이 덕분에 신비로움과 아득함이 가득한 신기루 같은 Full Fathom Five, 저음의 피아노와 급박한 퍼커션 인트로가 인상적인 업비트의 The Wicked Sister는 선동적인 아름다움을 풍기게 하는 등 어느 한 곡 간단히 들어 넘길만한 게 없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울 만큼 풍성하고 알차다.

AMC2-004

안나게르만 : 정원에 꽃이 필 때

러시아 로망스의 백미 나 홀로 길을 걷네, 빛나라 빛나라, 나의 별이여 가 수록 앨범 〈정원에 꽃이 필 때〉에 수록된 곡들 가운데서, 봄, 춤추는 걸 좋아해요, 희망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잔잔하고 우수어린 단조의 곡들이다. 이미 드라마에 삽입되어 인기를 누렸던 나 홀로 길을 걷네를 비롯하여 쇼팽에게 보내는 편지, 가을의 노래, 당신은 내게 뭔가 말하고 싶었나 봐요, 빛나라, 빛나라, 나의 별이여, 난 봄을 기다려요 등은 언제 어느 곳에서 감상해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기에 손색이 없는 곡들이다. 특히나 러시아 로망스에는 저명한 러시아 작가나 시인들의 작품에 아름다운 선율을 입힌 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쁜 노랫말의 이해가 음악감상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다. 맑고 청아한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안나 게르만의 로망스가 신호탄이 되어 베일에 가려진 러시아 음악의 신비를 하나씩 풀어줄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발매될 시리즈를 통해 러시아 음악이 우리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AMC2-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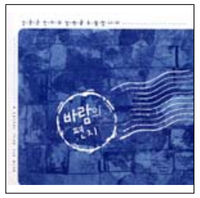
제시 : Love is never far away

스칸디나비아의 길고 어두운 겨울을 밝힌 천사의 목소리 제시의 맑은 보이스 칼라와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 담겨 있는 보석같은 음반.

AMC2-025

유열의음악앨범 – 평화

온 몸을 감싸오는 포근한 선율의 향연 가장 아름다운 월드 뮤직 모음집 유열의 음악 앨범.



AMC2-049

바람의 편지

음악평론가 송기철이 고른 아름답고 편안한 월드뮤직 모음집.
한국, 그리스,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에콰도르, 러시아, 노르웨이까지 지구촌 곳곳의 감동을 모았다.

AMC2-022

토메우 에스타라스 – 지중해의 꿈

코발트빛 물결과 올리브 향이 가득한 지중해의 작은 섬 마요르카에서 전해 온 낭만의 멜로디!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 여생을 보냈던 스페인 마요르카 섬 출신인 리코더 연주의 명인 토메우 에스타라스가 연주하는 바하, 텔레만, 비발디, 쇼팽, 피아졸라 같은 신화적인 작곡가들의 곡을 다이나믹하고 섬세하게 편곡 연주했다.

*추천곡 : 바하–예수는 만인의 기쁨(칸타타 147번 중 합창), 제임스 라스트–콘월의 아침, 피아조라–망각

AMC2-019

마리아 파란두리 : A Tribute to the Greek Songs Heritage

마노스 하지다키스와 더불어 그리스 최고의 작곡가로 꼽히는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작품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얻었던, 세계 각지에서의 숱한 공연을 통해 많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해주었던 마리아 파란투리는 1948년 11월 28일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노래한 대부분의 곡들은 요르고스 세페리스등 그리스는 물론 파블로 네루다를 포함한 세계의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노랫말로 사용함으로써 음악의 시적 감수성과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리스의 음악적인 전통에 월드뮤직, 그리고 현대 클래식음악의 요소를 적절히 혼합하여 그것을 자신 특유의 목소리로 소화해냈다.

AMC2-023

독쉬체르의 트럼펫 소품집

마음을 씻어주는 청량한 사운드. 러시아의 위대한 트럼펫 연주자 독쉬체르의 감칠맛나는 트럼펫 소품들. 쇼팽의 피아노 음악, 슈베르트의 즉흥곡, 리스트의 콘솔레이션을 포함해 감미롭고 찬란한 음악들이 가득 담겼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독쉬체르의 청량한 트럼펫 사운드가 일품이다.

AMC2-059

내 기도하는 그 시간 : 안희찬 트럼펫 성가집.

트럼펫 선율로 엮는 기도.
국내 최고의 트럼펫 연주자인 안희찬이 유명한 성가와 찬송가를 트럼펫으로 연주한 아주 특별한 앨범. 정신을 고양시키는 〈주의 기도〉를 시작으로 주옥같은 성가와 찬송가를 풍성한 오르간 반주에 맞춰 연주했다. 깊어가는 가을, 감성적인 사색을 즐기려면 꼭 들어보라.

AMC2-014

세상의 모든음악 1집 : 음악을 들으러 숲으로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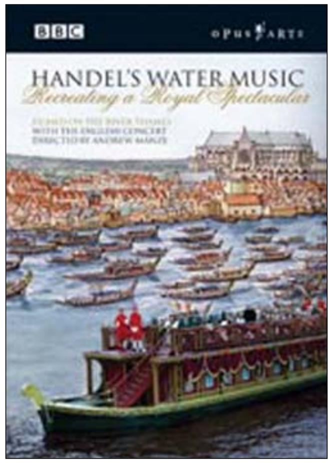
KBS FM 〈세상의 모든 음악〉 제작팀이 엄선한 16편의 주옥같은 서정시.
세상의 모든 음악들을 만나기 위해 숲으로 간다. 부드러운 미풍에 간지럼 타는 연못가의 햇살, 노을에 붉게 물드는 외로운 저녁바다, 푸른 산 위에 떠오르는 창백한 달,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음악이다. 그런 음악들이 그리워 우리는 숲으로 간다. 순결한 천사들의 합창(어찌 노래하지 않으리요?), 이국에서 느끼는 야릇한 향수와 설움(마리아), 숨이 멎을 정도로 황홀한 사랑의 눈빛(그대는 나를 놀라게 합니다)등...새들의 지저귐에 눈뜬 청명한 가을 아침엔, 이런 음악들이 그리워 견딜 수 없다!

AMC2-047

세상의 모든음악 2집 : PM 6:00... ‘쉼’

KBS FM 〈세상의 모든 음악〉 제작팀이 엄선한 17편의 주옥같은 서정시.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김미숙입니다’ DJ의 한마디로 저녁 여섯시를 맞이하는 청취자들에게...진심으로 그 정성에, 사랑에 감사드린다. 그 소박하고 따스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저녁 여섯시의 소우주를 선물한다. 언제, 어디서나 ‘저녁 여섯시’ 의 ‘쉼’ 이 함께 하기를...

BBC DVD



BBC/Opus Arte
OA 0930

헨델 : 수상음악

*앤드류 맨츠/잉글리시 콘서트

앤드류 맨츠/잉글리시 콘서트와 함께하는 1700년대로의 시간여행.
하노버를 무단이탈하여 영국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던 헨델. 호사다마라고 한창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하노버에서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선거후 게오르크가 영국의 새로운 왕 조지1세로 런던에 나타난 것이다.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껄끄러웠던 헨델은 왕실의 수상연회를 기회로 멋진 관현악 모음곡을 작곡함으로써 왕의 노여움을 풀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진위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그만큼 헨델의 이 작품은 왕실의 화려한 연회에 걸맞은 당당한 규모와 품격 높은 악상으로 가득하다. BBC에서 제작한 이 영상물은 1717년에 있었던 조지1세의 뱃놀이 당시에 있었던 이 작품의 초연을 다시금 재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박전문가, 음향학자, 사회역사학자, 정치역사학자, 그리고 연주를 맡은 잉글리시 콘서트의 리더 앤드류 맨츠가 힘을 합하여 당시의 상황을 충실히 고증하였다. 영상물에는 복원된 왕실 유람선 위에서 당시의 복장과 악기로 '수상음악'을 연주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모습과 더불어 관련 인원들이 이 이벤트를 준비하는 여러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담겨있다. 연주영상은 18세기 당시의 템즈강 인근을 담은 화가 스티븐 콘린의 파노라마그림과 실제 연주장면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멀티앵글을 지원한다.

[수상음악에 얽힌 에피소드]

1717년 여름, 런던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7월 17일 수요일 저녁에 왕은, 웨일즈의 왕자와 공주, 군주의 수많은 수행원, 그리고 남녀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첼시(Chelsea) 부근의 강(템즈 강)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훌륭한 합주 음악이 흥을 돋웠다." 기사 내용에서 왕이란 영국의 국왕 조지(George) 1세이고, 흥을 돋웠다는 음악은 바로 헨델이 쓴 수상음악이다. 그러니까 기사 내용은 조지 1세가 많은 사람들과 런던 첼시 부근의 템즈 강에 놀러가서 헨델의 수상음악을 들으며 물놀이를 즐겼다는 얘기다. 이 즈음 헨델은 조지 1세와 묘한 관계에 있었다. 수상음악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관계와 그들 사이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모르는 척 하고 지나칠 수는 없는 것 같다.

하노버에 봉직하고 있던 독일의 작곡가 헨델은 1710년경 휴가를 얻어 영국으로 갔다. 그곳에서 헨델은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 당시 헨델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음악적 사건 중에서는 언뜻 1711년에 리날도를 공연하여 대 성공을 거뒀던 일도 기억나지만, 리날도를 제외하고도 헨델은 여러 성공작을 내놓으며 런던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벌였다. 당시 영국의 앤 여왕은 헨델의 재능을 높이 샀고 헨델은 그녀의 생일 축하 곡까지 만들어주며 여왕의 총애를 받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작곡가 헨델이 런던에서 최고의 승리를 거두며 타국의 왕에게까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본인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다. 하지만 하노버 왕실의 심기는 불편했다. 왕실은 헨델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지만, 행복에 도취된 음악가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런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던가! 행복한 헨델의 앞길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다. 자신을 총애하던 앤 여왕이 1714년에 갑자기 서거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다음의 영국 왕으로 책봉된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가 배신(?)했던 하노버의 선제후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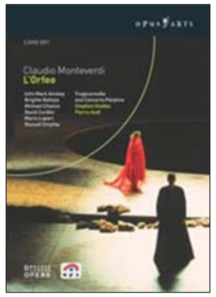
헨델의 입장은 몹시 난처해졌다. 이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특별한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탄하며 실의에 빠진 헨델에게 주위 친구들이 하나의 묘안을 제공했다. 그것은 1715년에 템즈 강에서 있을 왕의 뱃놀이를 위해 멋진 모음곡을 작곡해서 왕의 환심을 사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헨델은 수상음악을 쓰게 되었고 뱃놀이를 하면서 헨델의 음악을 즐기던 조지 1세는 이 뛰어난 음악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 자리에서 헨델에게 한번 더 연주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에피소드는 이 사건으로 인해 헨델과 조지 1세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얘기로 끝난다. 하지만 이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지 오래다. 서두에 밝힌 대로 런던 언론의 기사는 1717년 여름의 것이고, 헨델과 조지 1세의 불화는 이미 헨델이 그 직전에 쓴 오페라(Amadigi di Gaula)에 의해 해결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피소드의 진위여부는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별로 커다란 관심사가 아닌 듯하다. 오히려 애호가들은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싶어한다. 우아하고 화려한 이 음악을 통해 헨델과 조지 1세가 극적인 화해를 맺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더 짜릿한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의 위대한 힘을 극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아무튼 헨델의 수상음악은 왕의 수상파티에 어울릴 만큼 화려하고 우아하며 흥겨운 선율로 넘친다.

BBC/Opus Arte
OA 0935

트리스탄과 이졸데

존 트렐리벤과 데보라 폴라스키, 현역 최고의 두 바그너 가수의 열창
바그너의 오페라, 특히 〈니벨룽의 반지〉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주역을 맡으려면 바그너 음악에 대한 이해는 물론 엄청난 체력과 끈기도 지녀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일급 바그너 가수를 찾기 드문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완벽한 해답이 있다. 존 트렐리벤(트리스탄)은 시카고에서의 성공에 이어 독일과 오스트리아 각지, 스페인에 이어 올해부터 2007년까지 영국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의 〈반지〉 시리즈에 주역으로 캐스팅된 현재 가장 유망한 헬덴 테너이며, 데보라 폴라스키(이졸데)는 1990년대 이후 바이로이트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가극장에서 바그너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무거운 배역을 도맡아 노래한 초대형 소프라노로 꼽힌다. 2002년 리세우 가극장 실황으로 이 두 사람은 같은 극장의 〈니벨룽의 반지〉 시리즈에서도 완벽한 호흡을 과시한 바 있다. 바그너 연출의 명장인 알프레드 키르히너는 주인공들의 심적 갈등에 주목하여 고도로 상징화된 무대와 창조적인 방식으로 세밀한 묘사에 성공했다. 이를테면 트리스탄은 멜로트의 칼이 아니라 자신의 칼에 스스로 찔리는 것이다.



BBC/Opus Arte
OA 0929

몬테베르디 : 오르페오

존 마크 애인슬리(오르페오) / 후아니타 라스카로(유리디체) / 러셀 스미스(아폴로) / 데이빗 코디어(음악) 외 스티븐 스텁스 / 트라지코메디아 & 콘체르토 팔라티노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피에르 오디의 환상의 무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음악가 오르페오의 비극을 다룬 이 작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 하나로, 400년이라는 긴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주 무대에 오르는 엄연한 현역 오페라이다. 연출가 피에르 오디는 특유의 상징적인 무대연출을 통해 시공을 넘나드는 슬픈 사랑이야기를 절절하게 표현하였다. 강렬한 인상의 만능 테너 존 마크 애인즐리의 뛰어난 연기는 오르페오의 기구한 운명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마이클 챈스, 데이빗 코디어, 장 폴 푸셰쿠르와 같은 저명한 카운터테너들이 세 명이나 한 무대에 등장한다는 사실도 고음악 애호가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실력파 고음악 앙상블들인 트라지코메디아와 콘체르토 필라티노가 작품의 고아한 매력을 맛깔스럽게 들려주며, 전곡을 차분하게 이끌어가는 스텁스의 안정된 지휘도 훌륭하다. 일러스트레이티드 시놉시스와, 캐스트 갤러리, 지휘자, 연출가, 주연가수 등의 인터뷰를 포함하는 이 오페라에 대한 인트로덕션 영상물이 부록으로 제공된다.

BBC/Opus Arte
OA 0937

나비 부인

그리스 고전비극 스타일로 새롭게 태어난 나비부인
〈나비부인〉은 미국 장교에게 버림받고 목숨을 끊는 기생 출신의 일본 여인에 대한 오페라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꺼내기 싫은 이야기이면서도 서양인들에게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어서 긍정적 효과가 컸다. 반면 우리가 좋아하기에도 부담스런 오페라였다. 기모노를 입은 일본 사람이 주인공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일본풍의 선율도 일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암스테르담에서 공연된 이 네덜란드 오페라 실황은 그런 부담을 덜었다. 로버트 윌슨의 연출이 그리스 고전 비극 스타일로 꾸며졌기 때문이다. 물론 윌슨이 이런 착상을 한 것은 일본의 고전극과 고대 그리스 비극 간에 일정한 스타일의 공유가 있다고 본 때문 간결한 무대와 조명의 색조, 등장인물들의 절제된 동선과 제스처에서 실제로 그런 면이 발견된다. 타이틀롤을 맡은 셰릴 베이커를 비롯하여 모든 출연진이 연출자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면서 정갈한 노래를 불려주며 거장 에도 데 마르트의 지휘는 지극히 세련되고 완벽하다.

BBC/Opus Arte
OA 0938

라모 : 레 팔라댕(Les Paladins)

토피 레흐티푸(아티스) / 스테파니 도스트락(아르지에) / 로렝 나우리(오르칸) / 상드랭 피오(네린느) / 르네 시에르(앙셀므) / 프랑소와 피올리노(망토) / 윌리엄 크리스티/레자르 플로리상

'해피 맨' 크리스티가 들려주는 또 하나의 유쾌한 라모의 오페라
'레 팔라댕' (Les Paladins)는 라모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인 1760년에 완성한 3막 오페라이다. 스토리는 다소 진부하나 라모의 음악은 너무나도 밝고 흥겹다. 여든 노인의 손끝에서 이토록 생기발랄하고 참신한 음악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2004년 샤틀레 극장에서의 공연을 담은 이 영상물에는 작품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극한치까지 표출해낸 연출가 조세 몽탈보의 무한한 상상력과 젊은 감각이 담겨있다. 최신 영상기법을 동원한 획기적인 무대연출이 감탄을 자아내며, 라모의 음악과 브레이크 댄스가 근사하게 어울린다는 사실도 놀랍다. 깜찍한 외모의 도스트락을 비롯하여 쟁쟁한 바로크 전문 가수들의 능청스러운 연기도 일품이다.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에 버금가는, 보는 재미+듣는 재미 만점의 바로크 오페라.

환상적인 앵글로 파헤친 현대 음악가의 예술 세계

적스타포지션(Juxtaposition)

이데알 오디앙스가 제공하는 현대 음악 작곡가 콜렉션

다큐멘터리와 음악영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회사인 이데알 오디앙스 인터내셔널이 2005년 가을부터 발매한 적스타포지션 시리즈가 국내에 상륙했다. EMI의 클래식 아카이브 시리즈를 맡기도 했던 네덜란드의 저명한 영상감독인 프랑크 쉐퍼를 비롯한 유럽 정상급 음악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영상이다. 음악 이면에 담긴 작곡가와 연주자들의 깊은 이야기를 이 영상물들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현대음악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원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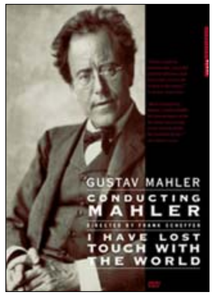
Juxtapositions(적스타포지션) – 현대음악시리즈 DVD

DVD9DS12

현대음악 시리즈 1 – 말러 & 베리오 편

1. 리카르도 샤이가 말하는 말러 교향곡 5번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던 리카르도 샤이. 이 영상물은 1998년 오케스트라 창립 110주년 및 샤이 재임 10주년 기념 연주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최측근에서 기록해놓은 귀중한 자료이다. 말러 교향곡 5번의 리허설장면과 작품에 대한 샤이의 해설 등이 펼쳐지며, 피레스와 협연한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0번, 터펠 등이 등장하는 토스카의 한 장면, 바레즈의 문제작 '아메리크' 등의 단편을 만날 수 있다.

2. 베리오가 재해석한 말러의 가곡 (Voyage to Cythera)
2003년 세상을 떠난 현대음악계의 거목 루치아노 베리오의 음악과 인생을 담은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 불레즈와 더불어 전자음향 음악의 초석을 다졌던 이 작곡가의 개성적인 음악세계를 그의 걸작 '신포니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스트라빈스키, 쇤베르크, 말러 등의 선배작곡가들의 영향과 더불어 작곡가의 작품에 관한 샤이, 무티 등의 인터뷰가 수록되었다. 1999년 네덜란드 아카데미 어워드 후보작, 2000년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발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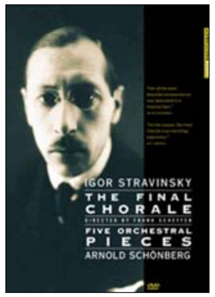


DVD9DS11

현대음악 시리즈 2 – 말러 편

1. 아바도,래틀,하이팅크,샤이,무티의 말러축제 (Conducting Mahler)
1995년 5월 암스테르담에서 펼쳐졌던 말러 페스티벌.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 베를린 필, 빈 필이 동원되었고, 현존 최고의 말러 지휘자들인 아바도, 하이팅크, 샤이, 래틀, 무티가 참여하여 말러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였던 이 역사적인 페스티벌을 기록한 도큐멘터리 필름이다. 각 교향곡들의 리허설 장면들은 물론 다섯 지휘자가 이야기하는 말러의 음악세계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최고의 명성을 누리는 이들 세 교향악단에 대한 지휘자들의 비교 코멘트 역시도 흥미롭다. 말러 애호가들의 필수 소장 아이템..

2. 리카르도 샤이가 말하는 말러 교향곡 9번
말러의 교향곡 9번에 기초한 음악 필름. 이 작품의 네 악장에 대한 지휘자 리카르도 샤이와 말러 전기 작가인 앙리 루이 드 라 그랑쥬의 분석을 담았다. 특히 이 영상물은 2004년 7월로 16년간의 관계를 마무리한 샤이와 암스테르담 콘체르트헤보우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말러 교향곡 9번과 뗄래야 뗄수 없는 작품인 '대지의 노래'의 단편도 감상할 수 있는데, 토마스 햄슨의 바리톤 버전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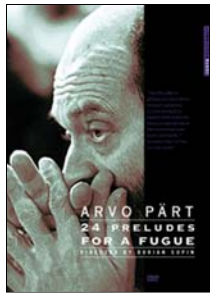


DVD9DS13

현대음악 시리즈 3 – 스트라빈스키 & 쇤베르크 편

1.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을 통해 바라본 스트라빈스키 (The Final Chorale)
1920년 스트라빈스키가 작곡한 독특한 편성의 작품인 '관악기를 위한 교향곡'을 중심으로 이 작곡가의 만년의 음악세계를 진지하게 다룬 영상물이다. 괴짜 피아니스트이자 현대음악전문지휘자인 라인베르트 데 레우가 이 작품에 사용된 몽타주기법에 대한 분석하며, 그가 네덜란드 윈드 앙상블과 함께한 리허설과 공연실황이 수록되었다. 연주에 앞서서 각각의 관악기들을 꼼꼼하게 정비하는 뮤지션들의 섬세한 손길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영상물의 큰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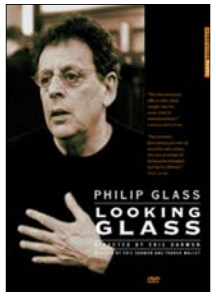
2. 미카엘 길렌이 말하는 쉔베르크의 작품세계 (Five Orchestral Piece)
1909년에 작곡된 '5편의 관현악 소품'은 조성음악에서 무조음악으로 옮겨가는 쉰베르크의 거대한 발자취를 담았던 20세기 최고의 혁명적인 작품이다. 이 영상물은 20세기 음악에 특히 뛰어난 지휘자인 미카엘 길렌이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닉을 이끌고 이 문제작을 치밀하게 분석한 리허설 장면과 연주실황을 담았다. 길렌 외에도 피아니스트 겸 음악비평가 찰스 로젠, '세기말 비엔나'의 저자인 문화사학자 칼 쇼르스케의 쉰베르크의 삶과 음악에 대해 인터뷰가 함께 수록되었다.



DVD9DS09

현대음악 시리즈 4 – 아르보 패르트 편

신비로운 음악세계 & 너무나도 인간적인 작곡가의 모습 (24 Preludes for a Fugue)
신비로운 음악세계 이면에 담긴 너무나 인간적인 작곡가의 모습. UNESCO 무형문화유산 상, 2002년 패르누 국제 다큐멘터리 & 인류학 필름 페스티벌 수상작. 종소리를 의미하는 '틴티나불리' 기법으로 유명한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아르보 패르트에 관한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작곡가의 지척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하게 기록한 다큐멘터리 작가 도리안 수핀의 이 영상물은 영혼을 노래하는 신비로운 음악세계 이면에 담긴 이 작곡가의 너무나 천진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감동적으로 담았다. 작곡가의 대표적인 작품인 '타불라 라사', '프라트레스', '알리나를 위하여', '동양과 서양', '체칠리아' 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의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리허설 장면도 만날 수 있다. 이 영상물이 끝날 무렵이면 이 도인풍의 기이한 작곡가가 마치 이웃집의 친근한 할아버지처럼 어느 새가 정서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특별 부록으로 정명훈의 '체칠리아' 리허설장면(27분), 보이시스 오브 유럽 유스 콰이어의 'which was the son of' 리허설 및 공연실황(28분), 파트리시아 로자리오가 솔로를 맡은 'Como Cierva Sedienta'의 공연실황(36분)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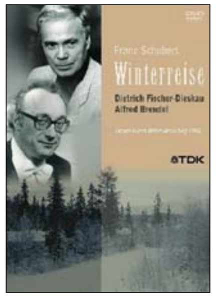


DVD9DS10

현대음악 시리즈 5 – 필립 글래스 편

미니멀리즘의 대가 필립 글래스, 그의 삶과 음악들 (Looking Glass)
미니멀리즘의 대가 필립 글래스, 그의 삶과 음악들. 기계화, 단순화, 획일화된 현대사회의 단면을 음악의 틀속에 고스란히 반영한 미니멀리즘은 현대음악의 주요한 트렌드로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필립 글래스는 미니멀리즘의 상징과도 같은 이름이다. 이 영상물에는 뉴욕, 런던, 보스턴, 파리를 바쁘게 오가며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필립 글래스의 활약상과 더불어 자신이 들려주는 성장과정 및 음악수업과정이 담겨있다. 작곡가의 대표적인 오페라인 '해변의 아인슈타인', '아크나텐', '미녀와 야수'의 초연 당시의 영상,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슈투트가르트 체임버의 피아노협주곡 공연실황 등을 만나볼 수도 있다. 특별부록으로 작곡가의 최신 오페라인 'The Sound of a Voice'에 대한 작곡가 자신의 인터뷰, 'The Sound of a Voice'의 공연실황의 단편들, 작곡가의 음악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연출가 로버트 윌슨의 인터뷰, 작곡가 자신의 연주하는 연습곡 2번을 수록하고 있다.

TDK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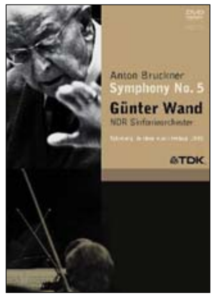


TDK DVWW-COWINT

슈베르트 : 겨울 나그네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바리톤), 알프레트 브렌델(피아노)

1979년 브렌델과의 겨울여행.
수많은 콘서트와 녹음을 통해 슈베르트 연가곡 가수의 전형처럼 추앙 받았던, 피셔-디스카우가 54세 되던 해인 1979년에 남긴 영상이다. 1979년 1월 베를린의 지멘스빌라에서 녹취했다. 슈베르트 연가곡이라면 이미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제럴드 무어와 최고의 녹음을 완성한 그였지만, 이 영상에서는 여섯 살 아래인 오스트리아 피아니스트 알프레트 브렌델과 호흡하며 보다 원숙한 해석을 들려준다. 56분이나 되는 보너스 트랙에는 녹음에 앞서 그가 브렌델과 의견을 교환하며 한곡 한곡에 대해 치밀한 해석을 준비하는 모습이 자유로운 영상으로 담겼다. 어둑한 화면에서 위대한 두 음악가의 슈베르트에 대한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귀중한 영상물로 소장 가치가 매우 높다. 러닝타임: 73분/56분(보너스 트랙)



TDK DVUS-COWAND1

귄트반트 – 브루크너 : 교향곡 5번

*귄터 반트, 그가 불태운 마지막 네 번의 불꽃!
2002년 2월 14일 90세의 일기로 사망한 20세기 마지막 독일거장 귄터 반트. 노쇠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연히 불타올랐던 그의 위대한 예술혼을 이 숭고한 영상물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거장이 일평생에 걸쳐 갈고 닦았던 브루크너의 중후기 교향곡들중 5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 동반자였던 북독일 방송교향악단(NDR 심포니)과의 연주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이 영상물에는 그 어떤 휴먼 드라마들보다 더한 거대한 감동이 담겨있다. 포디움 위에 그냥 서있는 것조차 안타까울 만큼 너무나 노약한 육체이나 그의 절제된 손끝과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을 통해 구현되는 브루크너의 세계는 그 어떤 연주들보다도 장엄하고 웅대하다. 북독일 방송교향악단은 자신들을 독일을 대표하는 브루크너 오케스트라로 조련시켜주었던 노대가의 마지막 열정에 혼신을 다한 뜨거운 연주로 화답하며, 홀을 가득 메운 관객들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립박수로 존경심을 나타낸다. 브루크너가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거대한 우주의 마지막 화음이 아스라이 잦아든 이후 찾아오는 숨막힐 듯한 정적의 감동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마스네 : 베르테르

TDK DVWW-POWER

베르테르의 목숨을 건 사랑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2005년 최신 실황

괴테의 명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독일이 아닌 프랑스에서 명작 오페라로 태어났다. 1892년에 초연된 마스네의 〈베르테르〉가 그것이다. 2005년 빈 국립 가극장 실황인 이 영상물은 비극적 사랑의 주인공인 베르테르과 샤를로테를 소설 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루마니아 출신의 연출가 안드레이 세르반은 시대 배경을 불과 수십 년 전으로 설정했으며 베르테르를 원작보다 훨씬 적극적인 성격으로, 샤를로테를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담배를 피워 물기도 하는 여인으로 그려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사랑을 세속적으로 그려낸 것은 절대 아니다. 오늘날에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로 형상화한 것이다. 잎이 무성한 큰나무가 중앙을 차지한 인상적인 무대와 지독할 정도로 아름다운 마스네 특유의 선율미는 원작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고스란히 지켰다. 왕년의 거장 조르쥬 프레트르를 연상케 하는 필립 조르당 (지휘), 우리 시대 최고의 리릭 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즈(베르테르), 풍요로운 질감의 신성 엘리나 가랑카(샤를로테)가 감동적인 연주와 빼어난 연기를 펼쳤다.

[추가자료]

○ 프랑스 작곡가 쥘 마스네(1842~1912)는 구노의 뒤를 이어 프랑스 오페라의 서정적인 면을 극한까지 살려낸 사람이다. 다양한 성격을 지닌 많은 오페라를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인 〈마농〉과 〈베르테르〉가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밖에도 〈에로디아드〉, 〈르 시드〉, 〈타이스〉, 〈샹드리용〉등의 작품들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21세기에는 그의 오페라가 더 자주 소개될 것이다.

○ 지휘자 필립 조르당은 스위스 출신이며 이제 겨우 30세를 갓 넘긴 세계 오페라 지휘계 최고의 유망주이다. 아직도 앳된 모습이지만 음악이 시작되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의 제스처로 지휘한다는 점, 프랑스 오페라를 주특기로 한다는 점 등에서 과거의 마에스트로 조르쥬 프레트르를 닮았다.

○ 아르헨티나 출신의 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즈는 유럽 진출 초기에 벨칸토 오페라로 유수의 가극장을 장악하였으나 이제는 19세기 후반의 프랑스 서정 오페라나 푸치니의 작품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가사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전달하는 빼어난 연극성과 세련된 창법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R. 슈트라우스 : 카프리치오

TDK DVWW-OPCAPR

음악이 먼저냐, 극이 먼저냐? 해묵은 논쟁에 대한 유쾌한 보고서

음악이 먼저냐, 극이 먼저냐 하는 것은 오페라 태동기 이래 끊임없이 반복된 명제이다. 1786년에는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가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바람에 모차르트가 〈극장 지배인〉을, 살리에리가 〈음악이 첫째, 말은 둘째〉를 작곡하기도 했다. 리하르트 쉬트라우스의 마지막 오페라는 이 명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고전주의 스타일의 명징함을 추구했고, 단막이면서도 결코 단순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 영상물은 2004년 여름 파리 국립 오페라 실황이다. 십년 가까이 이 극장을 이끌면서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 놓은 위그 갈(Hugues R. Gall)의 임기 마지막 작품이었기에 오페라가 제작되는 과정이 담긴 작품을 선택한 것이다. 천재 연출가 로버트 카슨은 그 의미를 멋들어지게 담았다. 주역인 르네 플레밍은 객석에 앉아 있다가 무대 위로 올라간다. 무대에서는 오페라를 제작하는 또 다른 무대가 펼쳐지는데 그것은 위그 갈이 봉직한 파리 오페라 극장의 내부를 상징한다. 플레밍 뿐 아니라 안네 소피 폰 오터, 디트리히 헨셀, 라이너 트로스트, 제랄드 핀리 등 초호화 출연진이 위그 갈의 명예로운 퇴장을 배웅한다.

[추가자료]

○ 20세기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이기도 한 리하르트 쉬트라우스의 오페라는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바그너를 계승하는 후기 낭만주의의 거성으로서 상징적이며 신화적인 대작들이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서 모차르트를 이상으로 하는 고전적 작풍을 추구하는 것이다. 〈카프리치오〉는 〈장미의 기사〉,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아라벨라〉와 더불어 후자에 속하는 작품이자 그의 마지막 오페라이다.

○ 이런 유형의 작품에서는 한결같이 주인공을 맡은 소프라노에게 최고의 우아함과 음악적인 완결성이 주어져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펠리시티 로트 등 당대 최고의 품위 있는 '디바' 가 이런 역을 불러야 한다. 오늘날 이 자리는 미국 출신의 르네 플레밍이 차지하고 있다. 기품있는 자태와 풍요로운 음색, 지적인 음악성으로 절찬을 받는 플레밍은 대선배들에 비교해도 더욱 잘 어울리는 쉬트라우스 오페라의 디바임이 분명하다.

○ 리하르트 쉬트라우스는 음악이 먼저냐, 극이 먼저냐 하는 질문에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을까? 오페라 줄거리에서는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음악과 대사 사이에 대등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길고 수다스럽게 구성되어 있는 대사를 오케스트라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포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견 극이 먼저인 걸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상 음악이 먼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결정적 단서는 모차르트 시대를 배경으로 삼았다는 걸 보면 발견할 수 있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는 음악이 먼저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반 뇌제

TDK DVWW-BLITT

러시아 역사상 가장 흉미로운 황제인 이반 뇌제의 광기와 사랑 !

16세기 러시아를 통치한 이반 4세는 너무 두려운 존재여서 '폭군 이반', 또는 '이반 뇌제(雷帝)'로 불린다. 그의 공포정치와 기행(奇行)에 대해서는 별 해괴한 일화도 많이 남아 있다. 〈스파르타쿠스〉로 유명한 볼쇼이 발레의 유리 그리가로비치는 1975년에 이 발레를 안무했다. 음악은 프로코피에프가 러시아의 전설적인 영화감독 에이젠쉬타인의 동명의 영화(1945)를 위해 작곡한 것을 기본으로 하되 역시 영화음악인 〈알렉산더 네프스키〉와 교향곡 제3번의 일부를 편곡하여 사용했다. 이 발레는 이반 4세의 광기, 특히 그가 사랑한 유일한 대상이었던 왕비 아나스타샤가 정적에게 독살되면서 그 광기가 폭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가로비치의 작품답게 〈스파르타쿠스〉 스타일의 엄청난 파워와 보리스 에이프만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특유의 섬뜩한 표현양식이 잘 결합된 최고의 걸작이다. 본 영상물은 파리 오페라 발레가 그리가로비치를 직접 초빙하여 공연한 2003년 12월 실황이다. 차가운 카리스마로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 니콜라 르 리쉬의 춤은 실로 압권이다.

[추가자료]

○ 이반 뇌제는 1530년에 태어나 1584년에 죽었다. 모스크바 영주가 된 것은 세 살때이고 열일곱이 되던 1547년에 러시아 황제로 즉위한다. 모친이 독살되는 등 불운한 유년기를 보낸 탓에 영민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이반의 성격은 남을 의심하고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 젊은 나이에 이미 수많은 치적을 쌓았으나 갑자기 중병에 걸린다. 모두가 죽음을 확신한 나머지 유서를 받고 도유식(塗油式)까지 마쳤다. 그러나 사경을 헤매면서도 신하들이 자기 아들에게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감지하자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귀족에 대한 불신은 커졌음은 물론이고 이반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던 아나스타샤마저 독살 당하자 피의 보복을 강행한다. 34세 때에는 대귀족과 성직자의 횡포를 견딜 수 없다며 몰래 모스크바를 떠나 2개월간 자취를 감춘다. 모스크바 군중들은 흥분하여 황제를 다시 모셔왔고 대귀족과 성직자는 완전히 힘을 잃고 탄핵 당한다.

○ 이반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어려서 죽었고 둘째 이반이 왕위를 계승할 예정이었다. 하루는 임신 중인 며느리의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뺨을 때렸다. 이에 흥분한 아들 이반이 대들자 뇌제는 들고 있던 쇠뭉둥이를 내리쳐 왕위계승자를 즉사시키고 말았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대신 왕위를 계승한 세째 표도르는 유약한 황제였고, 그가 일찍 죽은 후 왕위계승권을 지닌 네째 드미트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으로써 표도르의 황비의 오빠인 보리스 고두노프가 대권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드미트리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져 가짜 드미트리를 옹립하는 반역이 수차례나 있었다. (무소르그스키의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의 소재)

로시니-모세와 파라오

TDK DVWW-OPM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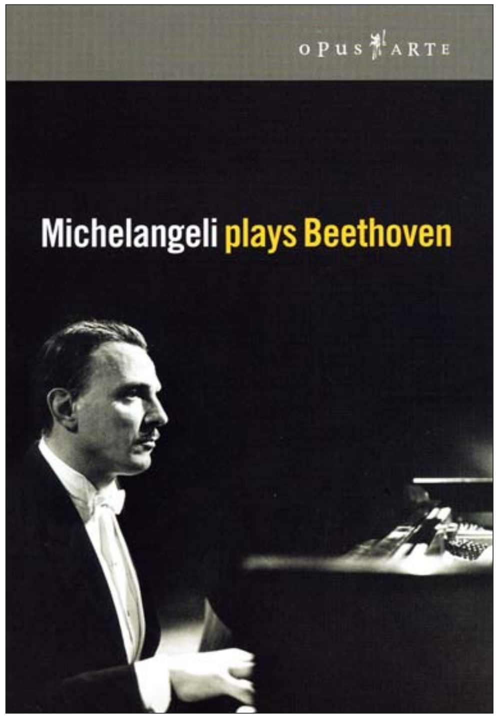
일다 압드라자코프, 모세 / 에르빈 슈로트, 파라오 / 주제페 필리아노티, 아메노피스 / 토미슬라브 무체크, 엘리에제르 / 바르바라 프리톨리, 아나이 / 소니아 가나시, 시나이데 / 리카르도 무티, 지휘 /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1822년 나폴리를 떠난 로시니는 빈, 런던을 거쳐서 파리에 정착하게 된다. 당시 파리는 마이어베어 스타일의 그랜드 오페라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로시니 역시 파리 대중들의 구미에 맞는 오페라들을 선보일 수밖에 없었다. '모세와 파라오' (1827)는 자신의 이전작인 '이집트의 모세' (1818)를 개편한 작품. 우선 텍스트가 프랑스어로 바뀌고, 4막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내용은 잘 알려진 구약의 출애굽의 일부를 다루고 있으나, 모세의 조카 아나이와 파라오의 아들 아메노피스와의 사랑과 같은 가공의 에피소드들도 덧붙어있다. 합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화려한 발레가 삽입되는 등 그랜드 오페라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특히 4막에 등장하는 유태인들의 기도합창은 파가니니의 유명한 '모세 변주곡' 의 기초가 되었던 귀에 익은 선율이다. 본 DVD는 2003년 밀라노의 아르침볼디 극장에서의 공연을 담았다. 무티가 지휘봉을 잡았고 라 스칼라의 인력이 고스란히 동원되었다. 모세를 맡은 압드라자코프는 물론, 프리톨리, 가나시, 필리아노티로 이어지는 주역들의 탄탄한 기량이 공연의 높은 완성도를 보장하며, 홍해의 갈라짐을 전통적인 무대 장치들을 활용하여 표현한 루카 론코니의 연출도 흥미롭다.

BBC DVD

미켈란젤리 그 유명한 갈루피 소나타 연주하다!

미켈란젤 리가 연주하는 베토벤 / 스카를라티 / 갈루피



Opus Arte OA 0939 D

1962년 이탈리아 투린 녹음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알프레드 코르토로부터 '새로운 리스트의 탄생'이라는 격찬을 받았고 아르헤리치와 폴리니라는 대 피아니스트를 키워낸 선생이기도 했던 피아노의 완벽주의자. 그의 진기한 연주기록이 담긴 귀중한 영상물이 나왔다. 아마 베토벤의 소나타 두 곡과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네 곡, 그리고 갈루피의 소나타를 담고 있는 이 영상물을 접하고 감격하지 않을 애호가는 거의 없을 것 같다.

베토벤의 소나타 Op.2의 No.3은 미켈란젤리가 20대 초반에 처음 연주한 이래 평생 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주해왔던 레퍼토리인데, 악곡의 특성상 미켈란젤리한테는 꼭 맞는 레퍼토리이다. 힘차고 생기로 가득한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부터가 충격적인 흥분을 자아내며, 2악장 '아다지오'는 깊은 사색에 잠긴 베토벤을 경묘한 영상으로 떠오르게 한다. 스케르초는 놀라운 집중력과 명쾌한 타건으로 주제의 대위구조를 명쾌하게 드러냈다. Op.111의 No.32번은 Op. 109, 110의 소나타와 함께 베토벤이 〈장엄미사〉를 작곡하는 기간 동안에 쓴 작품이다. 모든 악장이 아름답지만 특히 주제와 5개의 변주로 되어 있는 2악장에서 정신이 고조되다가 점차 정화되어가는 과정을 기막히게 연출해낸 미켈란젤리의 솜씨가 가히 신기에 가깝다. 스카를라티의 소나타에서도 호로비츠, 리파티, 리흐테르, 페라이어 등 스카를라티의 매혹을 감동적으로 전했던 대 피아니스트들과 당당히 왕좌를 겨룬다. 스카를라티 악곡이 정말 정교한 필치로 씌어진 명작이라는 사실을 미켈란젤리의 치밀하게 분석된 연주를 통해 다시 한번 절감한다.

필자도 그랬지만, 이 DVD의 수록곡을 보고 애호가들이 가장 궁금해 할 레퍼토리는 역시 갈루피의 소나타일 것이다. 음악을 듣다보면 어떤 레퍼토리가 한 피아니스트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갈루피 소나타와 미켈란젤리의 관계도 바로 그렇다. 이 곡을 들을 때면 오래 전 시 쓰던 한 친구가 이 곡을 무척 좋아했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시인이 아니더라도 그 소나타의 영롱한 아름다움을 듣고 단번에 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실 갈루피의 소나타는 음악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작품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고상하고 우아한 기품의 음악으로 들리는 것은 전적으로 미켈란젤리의 뛰어난 감수성 및 음악성 덕분이라고 본다.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통제력으로 수정처럼 맑은 음향을 들려주는데, 디지털 리매스터링 상태가 매우 좋아 흑백 영상과 잘 어울리지 않는 기분 좋은 언밸런스를 경험하게 된다. 1962년 영상이니 화면에 비친 위대한 거장은 42세 때의 모습이다. 8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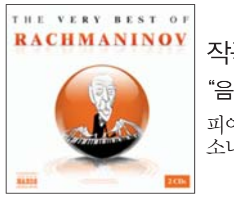
마이너 레이블의 최강자 낙소스의 작곡가와 음악사 이해를 위한 클래식 음반

작곡가 베스트와 시대별 음악 시리즈

세계 최대의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낙소스가 음악 초심자뿐만 아니라 음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 애호가들을 위한 교육용 시리즈 발매에 나섰다. 그 한 가지는 작곡가 베스트(The very Best of...)시리즈다. 작곡가 별로 최고의 명곡들만 두 장의 CD에 담고 작곡가에 대한 핵심 정보와 엄선된 수록곡에 관한 요약설명을 싣고 있다. 주요 명곡들을 가득 담고 있어 고전음악에 입문하는 학생이나 애호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이템이다. 또 다른 하나는 디스커버(Discover) 시리즈로 시대별 주옥같은 음악들을 역시 두 장의 CD에 담은 것이다. 특히 이 디스커버 시리즈에는 음악사의 사건과 문학 및 기타 예술과의 연계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 쉽지만 매우 전문적인 글을 실었다. 시리즈 제목이 암시하듯이 잘 모르던 사실을 깨우치는 효과,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까지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준다. 관련 그림과 사진자료들, 그리고 연표까지 싣고 있어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된다. 물론 이번 두 시리즈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있다. 두 장의 CD 음반은 아주 특별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낙소스 일반 CD보다도 저렴하다. 좋은 정보를 많이 담은 이 두 시리즈는 진정한 감동을 얻으려면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고, 알고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The Very Best Of Classical Music

Bach · Beethoven · Chopin · Handel · Mozart
Puccini · Rachmaninov · Strauss
Tchaikovsky · Vival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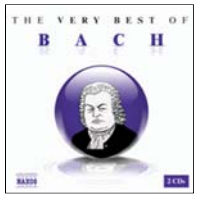


Naxos 8.552113/14(2CDs)

작곡가 베스트 음악 시리즈 – 라흐마니노프

"음악은 마음에서 온다. 그리고 마음에만 말한다"(라흐마니노프가 한 말)

피아노 협주곡 3번 / 저녁기도 / 전주곡 12번 / 보칼리즈 /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 교향적 무곡 / 첼로 소나타 / 피아노 협주곡 2번 /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 피아노 소나타 2번 / 교향곡 2번 등



작곡가 베스트 음악 시리즈 – 바흐

"음악 분야의 최고 입법자,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 미술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위상에 비견되는 거장"(베이커의 음악가 전기 사전에서)

토카타와 푸가 / 모음곡2번 / 두 대의 바이올린 협주곡 / B단조 미사 / 예수, 인간이 소망하는 기쁨 / 결혼 칸타타 /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 파르티타 / 성 마태 수난곡 /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 평균율 / 골트베르크 변주곡 / 첼로 모음곡 / 안나 막달레나 음악 수첩의 음악 / 오보에 협주곡 / 이탈리아 협주곡 / 칸타타 '나는 충분하다' / 마니피카트 /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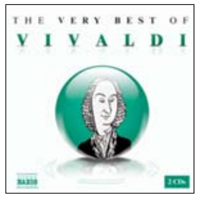
Naxos 8.552103/4(2CDs)

작곡가 베스트 음악 시리즈 – 헨델

"그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였다. 모자를 벗고 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베토벤이 헨델에 관하여 한 말)

제사장 사독 / 왕궁의 불꽃놀이 / 콘체르토 그로소 / 메시아 / 유다스 마카베우스 / 수상음악 / 리날도 / 하프시코드 모음곡 5번 / 메시아 / 오르간 협주곡 / 바이올린 소나타 / 세르세 / 알렉산더의 향연

Naxos 8.552109/10(2CDs)



작곡가 베스트 음악 시리즈 – 비발디

"그는 정력적으로 그리고 천부적 재능으로 작곡하는 분이다. 나는 악보를 베끼는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협주곡을 작곡한다고 들었다"

사계 / 플루트 협주곡 / 첼로 협주곡 / 바순 협주곡 / 트럼펫 협주곡 / 콘체르토 그로소 / 바이올린 소나타 / 플루트 협주곡 / 글로리아 / 만돌린 협주곡 / 바이올린 협주곡 / 류트 협주곡 / 오보에 협주곡

Naxos 8.552101/2(2CDs)

작곡가 베스트 음악 시리즈 – 베토벤

"지금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하이든이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을 듣고서)

교향곡 5번 / 에그몬트 서곡 / 피아노 소나타 월광 / 현악 사중주 '라주모프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 피델리오 /피아노 소나타 '비창' / 교향곡 6번 /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처' /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 교향곡 3번 / 바가텔 '엘리제를 위하여' / 장엄미사 / 피아노 협주곡 4번 / 안단테 파보리 / 교향곡 9번 '합창'

Naxos 8.552105/6(2CDs)

작곡가 베스트 음악 시리즈 – 쇼팽

"신사여러분, 모자를 벗으십시오, 여기 천재가 나와 있습니다"(슈만이 쇼팽을 소개하면서)

뱃노래 / 연습곡 / 녹턴 / 첼로 소나타 / 마주르카 / 피아노 소나타 2번 / 혁명 연습곡 / 발라드 / 전주곡 / 환상즉흥곡 / 피아노 협주곡 1번 / 월츠 / 폴로네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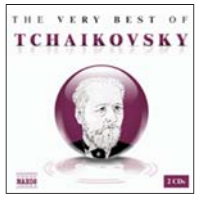
Naxos 8.552107/8(2CDs)

작곡가 베스트 음악 시리즈 – 모차르트

"신이 잘츠부르크에서 일으킨 하나의 기적이다"(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한 말)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 / 혼 협주곡 / 코지 판 투테 / 바이올린 소나타 / 레퀴엠 / 교향곡 40번 / 현악 사중주 '사냥' / 돈 죠반니 / 독일 무곡 / 아베 베룸 코르푸스 / 피가로의 결혼 / 클라리넷 협주곡 / 교향곡 41번 '주피터' / 관악 세레나데 /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 클라리넷 오중주 / 바이올린 협주곡 5번

Naxos 8.552111/12(2CDs)



작곡가 베스트 음악 시리즈 – 차이코프스키

"음악이 없다면 정말 미쳐버릴 것이다"(차이코프스키가 한 말)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 / 현을 위한 세레나데 / 호두까기 인형 / 교향곡 4번 / 백조의 호수 / 현악 사중주 안단테 칸타빌레 / 교향곡 5번 / 잠자는 숲속의 미녀 / 슬픈 노래 / 바이올린 협주곡 / 피아노 협주곡 1번 / 교향곡 6번 비창 / 사계 / 1812년 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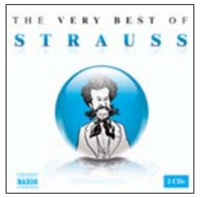
Naxos 8.552117/18(2CDs)

작곡가 베스트 음악 시리즈 – 푸치니

"나는 항상 오페라가 하나의 행성이라고 믿었다. 그곳에서는 뮤즈가 함께 일하고, 모든 예술을 축복한다."(영화 감독 프랑코 제피렐리의 말)

쟈니 스키키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토스카 / 마농 레스코 / 수녀 안젤리카 / 라 보엠 / 나비부인 / 투란도트 등의 오페라 아리아

Naxos 8.552119/20(2CDs)



작곡가 베스트 음악 시리즈 – 요한 슈트라우스

"월츠의 왕"

박쥐 서곡 / 피치카토 폴카 / 남국의 장미 / 황제 월츠 / 예술가의 생애 / 틱탁폴카 / 푸른 다뉴브 강 월츠 / 봄의 소리 월츠 / 트리치-트라치 폴카 / 집시남작 / 와인, 여자 그리고 술 / 안넨 폴카 / 빈 숲속의 이야기 / 무궁동 / 천둥과 번개 폴카 / 빈의 기질

Naxos 8.552115/16(2CDs)

낙소스 디스커버 시리즈 – 〈초기 음악〉편

조스캥 / 뒤페 / 란디니 / 태버너 / 탈리스 / 오브레히트 / 빅토리아 / 팔레스트리나 등 중세 시대 작곡가의 음악들. 음악사에 관한 해설 등 두툼한 부클릿 포함.

Naxos 8.558170/71(2CDs)

낙소스 디스커버 시리즈 – 〈고전주의〉편

모차르트 / 하이든 / 슈타미츠 / J.C.바흐 / 보케리니 / 글루크 / 고섹 / C.P.E.바흐 / 베토벤 등 고전주의 시대의 작곡가 작품들. 음악사에 관한 해설 등 두툼한 부클릿 포함.

Naxos 8.558180/81(2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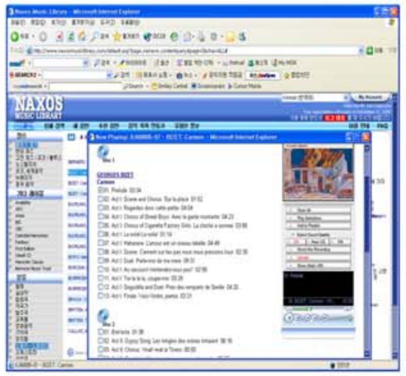
낙소스 디스커버 시리즈 – 〈20세기 음악〉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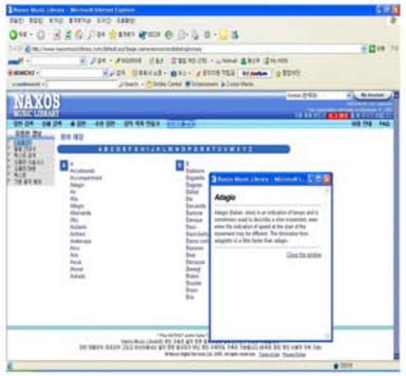
라벨 / 쇤베르크 / 아이브스 / 스트라빈스키 / 바르토크 / 쇼스타코비치 / 메시앙 / 브리튼 / 케이지 / 라이히 / 존 윌리엄스 등 20세기 작곡가들의 작품. 음악사에 관한 해설 등 두툼한 부클릿 포함.

Naxos 8.558168/69(2CDs)

NAXOS MUSIC LIBRARY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세계 최대 규모의 낙소스 온라인 클래식 뮤직 라이브러리

Naxos는 다른 어떤 클래식 레이블이나 음반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새로운 레코딩 제작으로 최대의 레파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메이저 클래식 음반사 입니다. 뮤직 라이브러리는 Naxos, Marco Polo, Da Capo의 전 목록 뿐아니라 째즈, 세계 음악 그리고 클래식 역사에 길이 남는 히스토리컬 음악 등을 Harmonies와 Analekta 그리고 BIS, ARC, FirstEdition, CBC와 같은 독립 레이블 들의 음반 첨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앞선 독립 레이블들을 영입해 갈 예정입니다.

낙소스는 모든 메이저와 독립 레이블 가운데 유일하게 다양한 범위의 음악 교육과 관련된 교육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소스는 McGraw-Hill, WW Norton 그리고 Prentice Hall과 같은 메이저 교육 출판사 등에 음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낙소스는 최상의 연주와 녹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도 높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CD 손상과 분실에 대한 위험이 없습니다. 더이상 진열장의 빈 공간을 걱정 할 필요가 없고 복사본을 만들어 둘 필요도 없습니다.
뮤직 라이브러리는 기본 레퍼토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힘든 희귀 레퍼토리들이 소장되어 있어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음악 수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외에, 낙소스 스포큰 워드 라이브러리(오디오 북)에서는 영어 학습과 교양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고전문학, 음악전기, 철학 등 600개 이상의 작품들을 청취, 낭독이 가능합니다.

100,000곡 이상 7,000여장의 CD분량, 2500명 이상의 작곡가의 작품, 그리고 매달 25~30장의 신보가 업데이트 되는 방대한 음원들을 CD 10장 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하고 용이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컨텐츠
> 위대한 작곡가들의 삶과 작품
> 설명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
> 설명과 함께하는 오페라
> 오케스트라의 구성 악기들
> 클래식 음악사
> 오페라의 역사
> 오페라 시놉시스
> 오페라 대본

장르
> 클래식 음악
> 뮤지컬 음악
> 째즈/포크/블루스 레전드
> 노스텔지어/뉴에이지
> 월드뮤직

이 모든 음악들을 64Kbps와 128Kbps로 스트리밍 서비스하며, 가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이메일 또는 한국지사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 사용자는 낙소스 뮤직라이브러리 홈페이지 www.NaxosMusicLibrary.com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무료 이용 서비스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년 구독 : 160,000원
- 6개월 구독 : 100,000원

더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면 낙소스 코리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naxoskorea@kornet.net
naxoskorea@naxos.com
(02)717-1070

NAXOS MUSIC LIBRARY

거대한 클래식의 바다로 당신을 초대 합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

CLASSICAL - JAZZ - WORLD MUSIC
100,000곡 이상의 유명 째즈, 클래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간단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낙소스 뮤직라이브러리와 함께 클래식 뮤직 매니아가 됩시다!!!!

표지사진 : 장혜원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5년 10월호
통권 제 6호 발행 : 2005년 10월 25일
발행인 : 임용묵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뮤직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usic.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